HANURI TOUR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우수대리점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개별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855-388-4141
1001 S.Vermont Ave. #209, Los Angeles, CA 90006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January 26, 2017 Vol. 563

목회자 공격에 대한 바울의 답은

칼빈신학교 웨이마 교수 설교 세미나에서 강의

"오늘날 목회자들도 자신을 향한 여러 공격 앞에 바울처럼 변론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점검하길 바랍니다."

CRC(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 한인사역부 주최로 20일부터 21일까지 또감사선교교회에서 열린 설교 세미나 중 3번째 강의에서 제프리 웨이마(Jeffrey Weima) 교수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목회자상에 관해 전했다.

웨이마 교수는 미시건 주 그랜드래피즈에 있는 칼빈신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고 있다. 브록대학교를 졸업한 후 칼빈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와 신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캐나다 토론토의 위클리프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모교에 교수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저술 활동과 설교 세미나 등으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웨이마 교수는 이번 세미나에서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5번의 강의와 평신도들도 참석한 예배의 설교까지 총 6번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강의들은 데살로니가 전서만을 본문으로 해서 감사, 목회자상, 성, 재림, 휴거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것이 특징이었다.


CRC 한인사역부가 20일부터 21일까지 또감사선교교회에서 연 설교 세미나에서 웨이마 교수가 강의하고 있다.

세 번째 강의 제목은 "영아, 수유하는 어머니와 아버지: 목회자와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묘사(Infants, Nursing Mother & Father: Paul's Portrayal of a Pastor and Parishioners)였다.

웨이마 교수는 살전 2장 1~12절을 본문으로 "바울의 사역은 매우 성공적이어서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자신들의 회당에서 사람들을 빼앗아갔다고 화를 냈고, 이방인들은 바울이 시민들을 개종시켜 이방신과 로마를 경배하지 않도록 한다고 화를 냈다"고 설명했다. 바울의 이런 성공적 사역에 대해 적대 세력들은 "바울이 돈에만 관심이 있고 사람들의 찬사를 받으려 하며 속임수를 쓰는 사람"이라 매도했다. 이에 대해 바울은 2장 3절부터 6절까지 자신을 변론한다.

웨이마 교수는 "오늘날의 목회자들도 바울이 직면했던 문제에 직면한다"며 일주일에 한 시간만 일하는 게으름뱅이, 자아에 도취된 설교자, 사례비에 따라 움직이는 탐욕스러운 사람, 위선자 등이 대표적이다. →2면에 계속


취임식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President Donald Trump 2017 Supporters Tv 유튜브 영상 캡쳐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

도널드 트럼프 제45대 美대통령 취임…시편133편 1절 인용

도널드 트럼프가 제45대 美대통령으로 20일 취임했다.

그는 이날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쓰던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는 그에게,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많은 기독교인들 역시 기대를 걸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연설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how good and pleasant it is when God's people live together in unity)라는 성경 시편 133편 1절을 인용하며 "우리는 마음을 열어 우리가 어떤 점에서 서로 다른지 솔직하게 토론해야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언제나 연합을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미국이 연합할 때, 아무도 그런 미국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보호받고 있고, 또 보호받을 것이다. 우리의 군대와 법의 집행자들이 미국을 보호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고 역설했다.

→9면에 계속

건강한 한인가정, 함께 만들어 갑시다

미주장신대·한인가정상담소…가정폭력 40시간 전문가 교육과정 한인 기독교 사역자 23명 이수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건강한 한인가정을 만들어 가는 데 힘을 모을 기독교 사역자 23명이 새롭게 탄생했다.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이하 미주장신, 총장 이상명)와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 정 조)는 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9일(월)부터 13일(금)까지 1주일 동안 '가정폭력 40시간 전문가 교육과정(40 Hour Domestic Violence Advocate Training)'을 미주장신대 캠퍼스에서 진행했다.

이 교육과정은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미주장신대가 재학생 및 졸업생을 위한 겨울특강으로 개설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5일 동안 이어진 40시간의 교육과정에서는 △가정폭력 개요와 역사 △아동학대와 영향 △청소년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위한 안전 대책 및 평가 △이민법 및 기소법 등 법률적 지원 △피해자 상담과 리소스 등이 주된 내용으로 다뤄졌다.

수강생들은 폭력이라는 주제를 놓고 역사·심리·사회·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접근, 지식을 넓힐 수 있었다. 또한 실제로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는 한인가정상담소의 관련 부서 전문가들로부터 직접적인 피해 사례와 상담법, 지원 방법 등을 배우는 기회가 됐다는 평가다. 미주장신 이상명 총장은 "본교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이 과정을 겨울학기 특강으로 개설했다"고 했다.

→ 2면에 계속

"기독교 개종 의심만으로도 처벌"

오픈도어즈 박해가국가 순위 2위 소말리아의 현주소

북한은 장기간 기독교인들이 가장 심각하게 박해받는 국가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잘 알려지지 않은 국가들 가운데, 기독교로의 개종이 의심되는 자를 재판없이 공개적으로 참수하는 국가가 있다. 바로 소말리아다.

박해감시단체인 미국 오픈도어즈는 북한과 소말리아를 박해국가순위 1, 2위에 올려놓았다.

애드투더처치인니드(Aid to the Church in Need)는 "북한과 소말리아 내에서 일어나는 박해가 너무 극심하여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정도"라고 밝혔다.

1993년부터 박해국가순위에 등장한 소말리아는 지난 10여 년간 종교 자유를 심각하게 박해하는 국가에 속해왔으며 최근 그 순위가 급상승했다.

소말리아는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내전과 이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다.

힘이 약한 소말리아 정부가 지방 도시를 장악 중인 알샤바브 등 이슬람 근본주의 단체들과 씨름을 하고 있다.

→11면에 계속

"예수영맥을 따라 광야로 나선 순례자들의"
기독교 대한감리회 빈들교회
담임목사 : 김 용 조
■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관상기도회(금) 오후 8:00
32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818)518-0033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교회및 각선.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2017 한인 남침례교 선교대회
Korean Mission SBC Conference
건강한 교회 성장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 16:18)



강사진 (Speakers)
박성근 목사 LA 침례교회
최병락 목사 세미한교회
유관재 목사 성광교회
Dr. Jeff Lorg President of Gateway Seminary
최성은 목사 타코마제일침례교회
정승룡 목사 늘사랑침례교회
양권원 목사 Professor of Gateway Sem-
Dr. Jim Wilson Professor of Gateway Seminary
이진수 목사 뉴비전교회
주민호 목사 카작스탄 선교사
정용교 목사 국내선교부 부장
김재현 목사 NAMB 교회개척
■ 일시: 2017. 2. 20(월) ~ 22(수)
■ 장소: Gateway Seminary & 아름다운교회 (고승희 목사)
■ 등록처: 아름다운교회 (626) 810-4000 (사라박 간사)
■ 등록금: $50 (식사, 교재비 포함)



기독일보가 창간 13주년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다.

예수의 생명과 기쁨 전하는 신문 되라

본지 창간 13주년 맞이해 감사예배 드려

본지가 창간 13주년을 맞이해 23일 감사예배를 드리고 "어두운 세상과 이민자들을 향해 생명과 기쁨을 전하는 언론이 될 것"을 다짐했다.

2004년 1월 23일 LA에서 창간된 기독일보는 창간 기념일마다 교계 및 사회 지도자들을 초청해 함께 감사예배를 드렸는데 올해는 본지가 준비 중인 종교개혁 500주년 학술포럼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 기념예배를 간소화했다.

예배는 이인규 사장의 인도로 시작됐으며 마원철 목사(팜스프링스 온누리교회)가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특송을 부른 후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가 설교하고 오병익 목사(본지 이사장, 남가주벧엘교회)가 축사를 전했다. 축도는 진유철 목사가 했다.

진 목사는 "억울함과 인색함을 이기는 기쁨(빌1:3~6)"이란 제목의 설교에서 감옥에 갇힌 바울이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비밀을 전했다.

진 목사는 "바울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로 인해 감옥에 갇혀서도 억울함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또,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풍요로움 속에서 "사람들의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서 억울하고 인색하게 하는 신문이 아니라, 예수의 풍요로움으로 인해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기쁨의 메시지를 전하는 신문이 되라"고 했다.

기독일보는 2004년 창간 후, 뉴욕, 아틀란타, 시애틀 등으로 지사를 확대했으며 LA에서는 매일 업데이트 되는 온라인 신문, 주간 발행되는 종이 신문 외에도 한인 2세 중심의 영자 신문으로 교계를 섬기고 있다.

김준형 기자


미주장신대와 한인가정상담소가 함께 가정폭력 전문가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한인 기독교 사역자 23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미주장신대·한인가정상담소 협력
가정폭력 40시간 전문가 교육과정 한인 기독교 23명 이수

[1면으로부터 계속]또 이 총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특강을 통해 재학생들이 사역 현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고, 역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인가정상담소 카니 정 조 소장은 "한인사회 특히 한인 기독교계에서 공론화하기 어려운 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특강 기회를 제공해주신 미주장신대에 감사하다"고 말하며 "한인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한인 교계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관련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한인 교계와의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 건강한 한인가정, 그리고 사회와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힘을 모으고 싶다"고 말했다.

한인가정상담소는 캘리포니아 주로부터 가정폭력 40시간 전문가 교육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공식 인증을 받았으며 수강생 전원에게 전문 교육과정 이수를 증명하는 수료증을 수여했다.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은 그동안 간과했던 가정폭력은 물론 전반적인 폭력 문제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며, 이를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수강생 중 한 명인 안성자 목사는 "폭력은 나와 상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상담쪽에 관심이 있어서 수강했는데 살면서 주변에서 많이 보았던 부분들이 강의 교재에 있어서 놀랐다. 폭력에 대해, 피해자를 돕는 방법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은 블루쉴드 파운데이션(Blue Shield Foundation)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한인가정상담소는 40시간 교육과정은 물론 1박2일 목회자 수련회, 컨퍼런스 등을 통해 한인 기독교 사역자들이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돕도록 지원, 협력하고 있다.

오늘날 목회자 공격에 대한 바울의 해답은...

칼빈신학교 웨이마 교수 설교 세미나에서 강의

[1면으로부터 계속] 자신을 향한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비난에 바울은 아기, 어머니, 아버지의 비유를 들어 변론을 시작한다.

개역개정 성경 살전 2장 7절에서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란 구절 중 '유순한 자'는 헬라 원문에 따르면, 영아(infant)란 뜻을 지니고 있다.

바울은 자신의 목회 의도를 갓 태어난 아기의 순수함에 비유하며 자신의 무죄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웨이마 교수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순수한 동기를 갖고 목회하는지 점검해 보자"고 했다. 그는 참석자들을 향해 이런 질문을 던졌다.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기 위해 사역하십니까? 아니면 성도들의 칭찬을 바라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린 후, '예수님은 진정한 구원자야'라고 말하길 기도합니까? 아니면 '우리 목사님은 정말 대단한 설교자야'라고 말하길 기도합니까?"

"목회의 모든 방면에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인정받을 만한 일이나 명성에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현재의 교회를 섬기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큰 교회로 청빙 받는 것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부유한 성도와 저소득층 성도들을 동일하게 심방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바울은 어머니의 모습을 그린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그냥 어머니가 아니다. 바로 유모(살전 2장 7절)다.

그러나 좀 더 파고들어 가 보면 남의 자녀에게 젖을 주는 유모가 아니라 자신의 자녀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어머니다.

웨이마 교수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로 교회를 섬겨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신학교를 1등으로 졸업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우리에게 주어진 신성한 소명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소명"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했다.

성도들의 이름과 그들이 처한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가? 교회의 관리인이나 반주자 등 직원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가? 남의 이야기를 듣는가? 아니면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롬 12장15절)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하고 있는가? 등이다.

마지막은 아버지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시대의 아버지는 절대적 권위를 가진 막강한 존재였다. 웨이마 교수는 "현대의 평등주의는 목회자의 권위까지도 무시하고 싶어 한다"고 지적하고 "섬기는 리더십은 좋은 것이지만 권위를 경시하는 부정적 영향도 있다"고 했다. 그는 "목사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교인들의 의견만 기다리지 말고 미래의 비전을 분명하고 담대하게 제시하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권위는 오만한 지배자나 독재자 상을 지지하진 않는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권위를 행사하기 두려워해 성도를 이끌기조차 거부하는 목회자가 되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살전 2장 12절) 하는 일에 주저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강의를 마치면서 웨이마 교수는 "바울이 아버지부터가 아닌 영아, 어머니, 아버지의 순으로 자신의 순수성을 변증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권위를 내세우기 전에 먼저 겸손히 성도를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질의응답 시간에 한 목회자가 "우리의 순수한 동기를 어떻게 성도들에게 말해야 하는가?"라고 묻자 웨이마 교수는 "내가 스스로 이런 동기로 순수하게 목회한다고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은 자칫 이상하게 보이는 일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면서 "설교나 심방 중에 '제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약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든지 '이렇게 목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김준형 기자

www.saseducation.weebly.com
SAS 인가컨설팅,Inc
직업학교, 어학원, 종교특례대학, 일반대학, 데이케어/프리스쿨, I-20신청, 연방인가, 온라인교육사이트
대표 Paul Kim, Ph. D
summitus37@gmail.com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www.sarang.com
기독일보 창간 13주년을 축하합니다
2017년 표어:
복음, '삶에서 열방으로'
(마 5:14)
Gospel, 'My Life to the Nations'
(Matt. 5:14)
주일예배 (본당)
■ 1부 오전 7시 20분 ■ 2부 오전 9시 20분
■ 3부 오전 11시 20분 ■ 4부 (젊은이예배 Passion5) 오후 1시 40분
HolyWave English Worship [킹덤드림센터(KDC)]
■ 1부 오전 9시 20분 ■ 2부 오전 11시 20분
2부, 3부 시간에 드려지는 HolyWave English Worship은 믿음의 차세대들이 이민교회를 섬기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일꾼이 되도록 만드는 예배 입니다
www.holywave.sarang.com
청년 · 대학부
■ 청년부/한어대학부 : Passion5 오후 1시 40분(본당) ■ 영어청년부(NEXT) : 금요일 오후 7시 (사랑채플)
■ 영어대학부 : 오전 11시 20분 (은혜채플)
교회학교 주일 2, 3부 예배시간에 함께 진행됩니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시 20분 / 토 오전 6시 20분
매달 첫 토요비전예배 : 오전 6시 20분 (이중 언어로 진행)
AWANA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체육관)
한국학교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KDC)
사 랑 부 발달장애우 주일학교 : 주일 오전 9시 20분, 오전 11시 20분 (112호)
남가주사랑의교회 Sa-Rang Community Church
담임목사 노창수
Rev. Chang Soo Ro, Sr. Pastor
■ 본당 :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 킹덤드림센터(KDC) : 1990 W. Crescent Ave., Anaheim, CA 92801
■ Tel. 714-772-7777 / Fax. 714-772-0777 / e-mail: church@sarang.com

이병구 선교사

만인선교사 시대 이끌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 배출할 터

"GMS 선교사 훈련 위한 미주 OMTC 제4기 열린다"



이병구 선교사(총회세계선교회 GMS 미주 OMTC 훈련원장)

한국 최대의 선교단체인 총회세계선교회 GMS(Global Mission Society)가 미국에서 전세계를 향해 나아갈 한인 선교사를 발굴하고 있다. GMS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세운 선교단체로 현재 98개국에 2,492명의 선교사가 나가 있다. 신학적 성향은 보수적이지만 선교에 대한 접근법은 상당히 개방적이라 그동안 선교사 자격에 목사와 평신도 구분을 두지 않고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훈련, 파송해 왔고 특히 '전세계 이민자가 모이는 미국이 선교지'라는 관점에서 미주에도 해외 선교사 훈련원인 OMTC(Oversea Missionary Training Course)를 통해 장기 선교사 훈련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GMS 미주 OMTC는 오는 2월 13일부터 3월 3일까지 3주 동안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LA 컴미션(1520 James M. Wood Bl. Los Angeles CA90015)에서 3주간 합숙하면서 GMS 장기 선교사 제4기 훈련을 실시한다. GMS 이사, 선교학 교수, 현장 선교사 등 수준 높은 강사진들이 선교신학, 리더십, 후원교회 개발, 타문화권 이해, 세계선교 동향, 21세기 선교전략 등 선교의 필수 과목들을 가르친다. 1인당 등록비가 3주간의 숙식을 모두 포함해 1,300 달러이며 등록 마감은 2월 4일이다.

이 과정을 수료하면 GMS 선교사 파송 자격을 얻게 되고 파송교회가 있거나, 자비량 선교를 원하면 바로 임명과 파송을 받게 된다. 미주나 해외에서 전문인 선교사로 사역하기를 원하는 타 교단 목회자나 평신도들도 훈련 신청이 가능하다. 미주 OMTC 훈련을 받고 파송을 받으면, GMS 장기 선교사가 된다. 본부에 행정비를 납부하면 행정적 도움을 받으면서 정식 GMS 선교사로서 당당하게 전세계 GMS 네트워을 활용해 사역할 수 있다.

이번 과정에 특별히 기대가 가는 이유는 이 과정을 이끄는 이병구 신임 미주 OMTC 훈련원장이 바로 해외 선교사 출신이기 때문이다.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그는 인도에서 15년간 열정적으로 사역하며 교회 개척과 목회자 훈련 사역을 했고 KWMC 대회에서도 다양한 직책을 맡으며 한인 선교계를 위해 헌신했다. 최근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에서 선교목회학 박사 학위를 마치고 미주 OMTC 훈련원장에 임명됐다. 그는 선교에 대한 현장 경험과 학문성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평을 듣는다.

이병구 선교사는 "난 지금도 훈련원장이나 목사가 아닌 선교사이길 원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한국 선교가 열정과 헌신으로 한 세대를 보냈다. 이제는 선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건강한 선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한국교회의 선교를 돌아보면 일단 가고 보는 식의 공급자 중심의 선교였다. 파송교회가 원하는 선교를 하다 보니 노력에 비해 열매가 적을 뿐 아니라 오히려 선교사들이 현지인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다든지, 오히려 선교의 걸림돌이 되는 사건들까지 발생했다. 이제는 선교사와 파송교회, 선교기관은 물론 현지 교회와도 협업하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선교가 이뤄져야 한다."

이 선교사는 "이제 대부분 선교지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 그런데 교회가 이미 있는 곳에 선교사가 가서 교회를 세우고 현지 교회와 경쟁하는 선교를 해선 안되지 않는가"라면서 "현지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역, 현장에서 요구하는 특화된 사역을 펼치라"고 조언했다.

그에 따르면 현대 선교의 트렌드는 교회 개척이나 신학 교육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목사나 선교사가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에 평신도들이 사업체를 열고 그 사업체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것도 선교다. 이것은 단순히 자비량 선교를 하려고 사업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업 자체가 선교가 되는 '선교로서의 사업(Business as Mission)'이다. 또 현지인들이 스스로 하기 힘든 교육, 의료 같은 전문인 사역, 도시 빈민이나 어린이 및 여성 인권 같은 사회 사역도 선교의 도구가 된다.

그런 점에서 건강한 선교의 주역은 바로 전문인 평신도여야 한다. 이 선교사는 "선교 현장이 이젠 목회자보다 전문인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한인교회도 사역의 다변화를 이뤄야 하는데 이번 미주 OMTC 제4기는 '만인제사장'이란 개념처럼 '만인선교사'를 키워낼 것"이란 포부를 밝혔다. 예를 들면, 호스피스 병동의 의사든지, 미용실의 헤어 디자이너든지, 누구든지 스스로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갖고 자신이 가진 특별한 능력을 복음 전하는 데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선교사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선교사로서 건강한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선교사로서의 분명한 정체성과 함께 파송단체를 통한 훈련과 파송이 필수라 할 수 있다.

이 선교사는 "예전에는 누가 누구에게 선교하는 시대였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선교하는 시대이며,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선교를 받는 시대다. 이 미국도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이지만 동시에 선교가 필요한 나라다. 꼭 해외로 나가지 않더라도 미국 내의 수많은 다민족들을 복음화 할 선교사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의: 714-614-3666

*이메일: igmc21@gmail.com다.

김준형 기자

재미 남가주 황해도 도민회 회장 취임예배



11일 열린 제22대 재미 남가주 황해도 도민회 회장 취임예배에서 (맨 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오진형 목사가 신임회장으로 취임했다.

제 22대 재미 남가주 황해도 도민회 회장으로 오진형 목사(장애우사랑교회)가 취임했다.

오진형 신임회장은 "하나님께서 어린 나이서부터 피난과 월남 파병, 미국으로 인도하셔서 여러 단체를 섬기는 일로 황해도 도민회장을 이제야 맡게됐다"며 "나라를 사랑하는 귀한 단체를 여러 이사님들과 회원들과 함께 섬기겠다"고 말했다

11일 오전 나성동산교회(담임 박영천 목사)에서 열린 행사는 1부 예배와 2부 회장취임식 순으로 이어졌다.

유응렬 목사의 인도로 고귀남 목사(엘에이언약교회)의 대표기도, 김재성 목사의 성경봉독후에 정희주 목사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한 후에 이배형 목사가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쳤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박동우 위원(전 백악관 장애인정책차관보)이 오바마 미국대통령 봉사상을 받았다. 이인규 기자







창립 감사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옹기장이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사랑하며 존경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모시고 함께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오셔서 함께 축하 & 축복해 주시고,
기쁨과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임목사 **김 시 온** 올림

- **일시** : 2017년 2월 5일(주일), 오후 4시 (문의:213-407-4569)
- **장소** : 옹기장이교회 예배실 (미주성결교회 총회본부 2층)
  (691 S. Harvard Blvd., Los Angeles, CA 90005)
- **주관** : 미주성결교회, L.A.지방회

*명동교자 주차장에 주차하시면 되겠습니다 *

옹기장이교회
The Potter and Potters Mission Church



목회자 아버지학교가 신년하례회를 가졌다.

목회자 아버지학교 신년하례 모임이 23일 오후 예수사랑교회(김인구 목사)에서 있었다.

성요셉 목사(소망장로교회)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김근수 목사(한소망교회)가 기도하고 김인구 목사(예수사랑교회)가 '아버지의 마음으로(사 42장 1절)'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설교 후에는 주창국 장로(전 미주 아버지학교 본부장)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예배는 석종민 목사(한누리교회)의 축도로 끝났다.

이어 목회자 아버지학교 준비위원장 이취임식이 거행됐다. 제12기 준비위원장이었던 박세헌 목사(예수로교회)가 이임하고 제13기 준비위원장에 김인구 목사가 취임했다.

목회자아버지학교
신 년 하 례 회



과거 His Cafe가 열리던 모습.

음악과 찬양
사랑이 있는 His Cafe

많은 크리스천들의 생각 속에만 머무는 사역을 직접 실천하는 His Cafe! 이 모임은 최고급 커피는 무료로 제공하며 친숙한 노래와 찬양을 통해 깊은 울림을 주는 작지만 큰 모임을 실천하는 모임이다.

Repair Servant라는 귀한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마원철 목사(팜스프링스 온누리교회)를 비롯한 팀원들의 소중한 사역은 이미 6개월이 지나 입소문을 통해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알려져 가고 있다.

매주 화요일 1시부터 4시까지 오픈하는 카페사역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한 달에 한번은 화요일 저녁(6시반)에 작은 음악회도 열리고 있다. 이 음악회는 지금까지 4회를 개최했는데 성도들에게는 깊은 울림을 주며 초신자나 교회를 잠시 쉬고 있던 분들이 다시 교회에 출석하게 디는 계기가 되고 있다.

1월 음악회는 오는 31일 6시30분에 열리며 2월부터는 매주 화요일 낮 2시부터 스마트폰 강좌를 비롯해 여러 강좌를 준비하고 있다.

연락은 마원철 목사(909-292-7474)에게, 위치는 컴미션(1520 James N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내에 있다.



신년하례 및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마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
신년하례 및 조국 위한 기도회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회장 이호우 목사) 주관 '신년하례 및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가 17일 오전 윌톤한인교회(담임 김도석 목사)에서 열렸다.

윤우경 집사(OC기독교평신도연합회 증경회장) 사회로 진행된 1부 예배는 금병달 목사 개회 기도, '산 자의 하나님'(마 22:32) 주제의 김도석 목사 설교, 백현민 목사와 지정구 장로 대표기도, 최학량 목사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진 2부에서는 한국문화예술공연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김영진과 조웅규 전 의원 초청 '조국과 민족의 발전'과 관련한 강연 및 기도회가 이어진 후 김도석 목사의 축도로 모든 행사가 마무리됐다.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이상훈 목사의 열방 이야기 3



카야와 그의 가족들 이야기

필자의 꿈은 선교부흥이다. 선교지에서 암송하며 다니는 구절 중 여호수아 1장 3절을 특히 좋아한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스 땅까지 햇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 말씀을 믿으며 순례의 전도행군을 한다.

2014년 4월 경, 필자는 선교 동역자인 ITN(InterNational Turky Network)의 한인계 디렉터로 사역하는 Peter Kim 목사와 터키 남동부 지역에서 전도순례를 한 적이 있다.

가지엔텝에서 돌무시로 불리는 미니 시외버스를 타고 아드야만이라는 작은 도시에 도착했다. 터미널에서 내려 멜키스(다운타운)쪽으로 걸어갔다. 어디에서든 비슷하겠지만 영혼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번화한 곳으로 가는 것이 좋다. 한참을 걷다가 재래시장이 자리한 멜키스로 들어 섰을 때의 일이다.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한국사람이지요?"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닌가? 귀를 의심하며 주변을 돌아 보아도 한국인은 없었다. 그 때 한 가판 점포에 앉아 있던 터키인이 손을 흔들며 "저예요"했다. 우리는 그에게 다가가 반갑고도 놀라워서 어떻게 한국 말을 할 줄 아냐고 물었다. "저, 한국에서 5년 동안 일하고 왔어요" 하며 악수를 청해 오는데 손가락 하나가 없는 것이었다. 잡은 손을 보면서 "손을 다쳤네요?"하고 물었더니 그가 "한국에서 일하다가 다쳤어요"라고 말했다.

그에 의하면, 그는 한국 여행비자를 얻어 무작정 한국으로 가서 한 프레온 공장에 불법 취직했는데, 취약한 시설에서 기계 작업을 하다보니 그만 압축 기계에 손가락이 잘려 나갔다고 한다.

그런데 공장 사장이 병원에서 응급치료만 해주고 한달도 안되어 보상금도 없이 밀린 봉급도 안 주고 쫓아 냈다고 한다. 자기 이름은 카야인데 "그 사장님 참 나쁜 사람이예요"라고 했다.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그 사장을 대신해 그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다.

그때 그는 "아니예요. 그 다음 사장님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내 봉급 적금 들게 해서 5년간 일해서 번 돈으로 여기 가족들이 살았고 현재의 집도 장만하게 했어요. 그 사장님이 교회도 데리고 갔어요"라고 했다.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그에게 예수님은 믿는지, 혹 크리스천은 아닌지를 물었다.

그는 "네. 그런데 가족들은 아직 예수님을 몰라요. 아드야만엔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나도 교회 못 다녀요"했다.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다. 한동안 이야기 하다가 저녁 무렵이 되어 그가 자기 집으로 우리를 초청했다. 우리는 마을 어귀에서 수박과 과자를 사들고 그의 집을 방문했다.

제법 큰 집인데 1층은 비즈니스로 세를 주고, 2층에 방이 5개 있는 집에서 아내와 3남 1녀가 살고 있었다. 아내는 1명이냐 했더니 그가 정색하는 얼굴로 "아내는 한 명만 있어야 돼요. 이슬람 잘못하고 있어요" 했다.

우리는 그 집에서 그의 가족들과 한국 문화이야기, 터키와의 역사 이야기 등을 나누다가 기도하며 조심스럽게 그 가족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

그의 가족들은 귀기울여 들었고 그제서야 카야는 그의 가족들에게 자기는 한국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했다. 그 순간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우리 일행도 카야와 함께 하염없이 울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 저희를 이곳에 보내셨음을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했다. 〈계속〉



라파선교회 주최 〈선교오행침 28기 침술강의〉

*일시: 1월 28일~4월 22일(12주) *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 5시~8시
*장소: LA비전교회(520 Lafayette Park PL, #200, LA, CA 90057
*강사: 오덕상 한의학 박사 *문의: 213-703-0920
*등록비: 3백불(개인별 교재용 바인더 및 침 구입비)

미주크리스찬 신년하례 및 특강

2월 4일(토)
오전 10시~오후 12시 30분

2017년 신년을 맞이해 미주크리스찬 문인협회에서는 신년하례 및 특강을 개최한다. 특히 신입회원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환영한다.

*특강 주제: 시 창작 기본
*강사: 김문희 시인
*장소: 작가의 집
*주소: 2410 W. James M. Wood BL, LA, CA 90006
*문의: 213-249-0771(정지윤 회장)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이 사 장 : 오병익 **발 행 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19년 전통계승 • 11,000 sq. ft.의 넓고 럭셔리한 공간 • 7개의 전문 디비젼 • 최신장비 보유 • 고객맞춤 시술로 높은 만족도

무이자 페이먼트 가능
마이크로 모낭단위 이식 (FUE)
3D모발이식 $1.40 모발당 ~~$5~~

촘촘하고 자연스러운 PIN 이식방식



헤어라인, 정수리, 눈썹, 속눈썹 이식

높은 생착률 • 흉터가 보이지 않음 • 짧은 회복기간 • 1회 5000모 이상 이식가능
0.60mm 가는 PIN에 머리카락을 장착하여 PIN과 함께 펀치 이식하여 조직 손상률이 적으며 촘촘히 이식되므로 재수술이 필요없어 원래의 풍성한 모발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이식 시 상처를 덜 만들기 때문에 조직이 많이 붓고 두피가 딱딱해지는 것을 최소화시켜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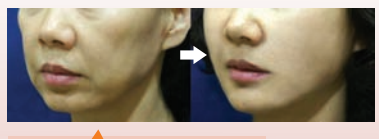
3개월만에 풍성해집니다!
발모클리닉



발모치료 10회(3개월) 12개월 무이자 페이먼트 $125/월
+ FREE 올게닉 발모샴푸 2병
FREE 발모 S토닉 2병
FREE 닥터 수 처방전 (3개월치)

무이자 페이먼트 가능
번거로운 지방이식, 쉽게 없어지는 볼륨주사 대신!
콜라겐의 싸이클을 주입하자! UP SEE

울퉁불퉁 들어간 곳엔 볼륨을! 쪼글쪼글한 피부는 탱탱하게!



UP SEE (1 bottle) ~~1000~~ $600

UP SEE (1 bottle) + 파워 실 리프팅 1회 (턱선, 팔자, 이마 중 가장 심하게 처진 1 파트) ~~2000~~ $1100

파워 실 리프팅 1회 (턱선, 팔자, 이마 중 가장 심하게 처진 1 파트) ~~1000~~ $500

리프팅 스페셜 1월 31일까지!
지금 나에게 필요한 시술은?
피부탄력? 잔주름? 반짝반짝 동안피부?

수술없이 만드는 V라인과 처진 피부 탄력 UP!

1 떨마지 1200샷(얼굴 전체+목) PRP 자가혈 1회 ~~2200~~ $1200
2 실리프팅 (턱선, 팔자, 이마 중 가장 심하게 처진 1 파트) PRP 자가혈 또는 백옥주사 1회 ~~2000~~ $1000
3 매직 리프팅(얼굴 전체) 물광주사 1회 ~~1500~~ $800

$500 ~~1200~~ 1월 31일까지!
3D 리프팅+모공+잡티+주름
3D 리프팅 (얼굴+눈가+목) 2회
반도체 S Laser (모공축소) 2회
유년 줄기세포 (피부재생) 2회
ETP 영양집중 케어 2회
피부 스케일링 2회

LINE 라인성형외과 213.383.3322
3424 Wilshire Blvd. #1100, LA, CA 90010 (Big 5 빌딩 내)
빌딩 Convert (주상복합으로 변경) 공사로 인해 이전했습니다.
카카오톡 상담서비스 아이디: LINEPS

가정천국을 위한 성령의 역사

누가복음 12:49~53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 재 효

누가복음 12:49~53

49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50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51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52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53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온 가족이 구속사관인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서 회개 하고 죄 사함을 받은 이후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늘 소망 영생 복락을 위하여 믿음으로 하나 되어진 가정을 가정 천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대속의 희생양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상하로 이루어진 십자가 형틀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죄악을 허물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화목제물이 되셨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좌우로 이루어진 십자가 형틀은 사람과 사람사이에 이해타산의 감정으로 맺힌 원한이나 모든 죄를 용서받으면서 누구와도 막힘없이 교통되게 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관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인생이 하나님과 개통될 수 있고 세상 모든 사람들과도 원만한 화목의 분위기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49절을 보면 예수님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하십니다. 이 불에 대해서는 성령의 불이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심판의 지옥불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마태복음 3:10~13을 보시면 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마 3:10)"했는데 여기서 열매맺지 아니하는 나무,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선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도끼로 찍히어서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불은 지옥불에 대한 예언적 경고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마 3:11)"라고 하는 말씀 중에 나오는 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이 성령의 불은 예수님이 던지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성령의 불에 녹아져서 잘못 살아온 죄악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애통하며 자복하는 가운데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예수라는 그 이름을 따라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구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회개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받아야할 세례가 있는데 그것이 곧 다름아닌 성령이 주시는 불세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할 것은 주님이 성령의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오셨고 그 성령의 불로 회개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그 불로 말미암아 다시는 지옥 불에 시달릴 폐단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49절의 불은 지옥불과 성령의 불, 두 가지 모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불로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성령의 깨우치심에 따라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해서 그 모든 불의와 죄악을 소멸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두 번째 심판의 불로 임하는 지옥 불에 던져지는 폐단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는 두 가지 불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는 과정에서 성령의 불로 모든 지난 날의 잘못된 죄악을 완전히 태움 받게 되는 사람은 다시 지옥 불에 던져질 폐단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롬2:5)"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고집은 성령의 불을 원하지 않는 고집이 되고 그 고집은 훗날에 가서 피할 수 없는 지옥 불에 던져지고 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가정구원을 통한 가정천국을 이루어 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부부로써 에덴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범죄하기 이전엔 인생고(人生苦)라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의식주에 대한 염려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 하와가 마귀의 꼬임에 빠져 하나님 말씀보다는 마귀의 꼬임에 더 기대를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 값으로 낙원이었던 에덴에서 추방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죄 값으로 땅도 저주를 받았고 종일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명도 제한되어 사람은 두려움에 떨며 살다가 죽어서 지옥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시작된 인류 최초의 가정은 죄로 인하여 실패했고 후손들에게까지 그 죄를 전가시켜 줌으로 모든 인류는 죄 아래 태어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 값으로 꺼지지 않는 유황불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불꽃에 시달리는 심판의 불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49절에 우리의 가정을 두시고 예수님의 걱정스러워 하시는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즉 성령의 불이 붙은 사람은 지옥 불에 던져질 폐단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지옥 갈 인생들이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아 거듭남으로 새롭게 되어 하늘나라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동정 탄생하셨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1절에 보면 분쟁케 하려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을 위한 희생제물로 오셨는데 왜 이같이 갈등하고 다투게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한 가정에 다섯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은 진리를 깨달아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고 나머지 세 사람은 회개하지도 않고 악령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고 하늘나라를 목적으로 믿음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받지 못한 세 사람은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악령받은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8:44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영적인 소속이 악령에게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원죄를 전가 받아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야했고 죄인은 그 근본이 마귀에게 속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악령의 지배하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받은 두 사람은 하늘 시민권자로서 그들의 목적은 더욱 많은 영혼이 구원얻어 하늘나라 가도록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받지 못한 세 사람과 살아가면서 모든 분야에서 부딪히고 갈등하며 서로 다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쟁하게 된다는 것은 영적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은 살리는 목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악령은 죽이고 실패하게 하며 지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은 두 사람이 나머지 세 사람을 구원 얻게 하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의지해서 그들과 똑같은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렇게 모두가 구원얻게 되면 비로소 그 가정은 하나의 성령을 모신 가정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가서 전도하게 되고 생지옥과 같았던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을 바라보던 시각을 바꾸어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진정한 회개를 통해 참된 기쁨이 넘치는 가정 천국을 위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영원히 함께하시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바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신문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타베이스 구축
- IRS,FTB,SBOE,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ITC)
- I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쇼설연금,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토요일10 am-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픽/업/가/능

P.G.A Player Tour	(12~14살 1~2명 모집)
P.G.A Player Tour	(8~11살 1~2명 모집)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문의 : 최 제이콥 프로 T(310) 598-0746

Golf Studio 각종 골프클럽 최저가 판매
(Olympic 갤러리아몰 322호)

LA 예닮교회 부설 다중지능 교육원

성격과 적성에 맞는 나 자신의 미래 직업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지문(Finger Print)은 태아의 뇌 발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형성됩니다.
지문(Finger Print)을 통해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개인의 진로(전공)와 직업, 적성을 8가지의 다중지능(Multiple Intellgence)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집단상담(Group Counseling) 개인상담(Personal Counseling) 진로 직업적성검사(Mi test) 문의 (323) 559-0070 상담학 박사과정

LA예닮교회 1134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목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ea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
LA 예닮교회 담임목사

담임목사 청빙

자격요건
1. KPCA 교단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2. 신학 대학원(M. Div)를 졸업하고, 3년 이상 목회 경력이(부목사 포함) 있으신 분으로 55세 이하
3.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4. 한국어와 영어 구사가 가능 하신 분

제출서류
1. 이력서 및 가족사진 – 각 1부
2.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및 안수 증명서 – 각 1부
3. 신앙 간증문(성장과정과 신앙생활), 본인 및 사모와 가족 소개 – 각 1부
4. 목회 비전과 철학 – 각 1부
5. 최근 6개월 이내 설교 CD 또는 USB – 각 2부
6. 추천서 2부(추천인 및 봉투 날인 요망)

제출일시
2017년 3월 3일(금요일) 까지

제출처
성광장로교회 청빙위원회(1359 W. 24th St. Los Angeles, CA 90007)
연락처: T(323)539-0541, T(213)905-9084(9am~12pm)

기타사항
1. 제출서류는 상기 주소로 일반메일로만 접수합니다.
2.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분은 개별통지합니다.

•송재호 칼럼

Only God Can Make America Great

〈사무엘상 9장 15절 ~ 21절〉



송 재 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지난 20일 미국 제45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공식 취임했다. 이번 취임식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 C의 연방의회 의사당 앞 광장 특설무대에서 진행됐다.

이 취임식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했고 "권력을 워싱턴에서 국민에게 이양하는 날" 그리고 "오늘 여기서 지금부터 변화를 시작한다"고 선언하였다.

이번 트럼프 미국 45대 대통령 취임을 기해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미국의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 이제 미국은 새로운 날을 기대하며 변화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미국의 부흥과 역사의 변화를 위해서 새롭게 달려 갈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미국의 변화는 어떤 모습일까?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치러진 대통령 이취임식 때 아브라함 링컨의 성경책 뿐 아니라 가족들이 썼던 성경책에도 손을 얹고 선서할 것을 약속했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성경책은 그가 1955년 뉴욕에 있는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졸업할 때 어머니로부터 받은 선물이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취임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인디애나 주지사를 지냈으며 독실한 크리스천이라고 한다.

특별히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개신교 예배처럼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아침 첫 행사부터 가족과 함께 예배로 시작하게 되는 전통적인 대통령의 취임식의 모습이다.

취임식에서는 미국의 대통령과 부통령이 모두 국회의사당 계단에서서 임직을 수령하는 선서를 한다. 그 순서에는 부통령의 선서가 먼저 있은 후, 정확히 오후 12시에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의 선서가 이어지게 되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전통은 1933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이후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며 취임식장인 의사당에서는 왼손을 성경에 얹고 오른손을 들어 취임선서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신이여 굽어 살피소서'라고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교회 지도자들의 축복기도로 마무리 되어지는 것이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 모습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이 새롭게 45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세우고 시작하는 역사적인 시점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한다. 그것은 성경에서도 한 나라의 왕을 세우고 새로운 출발에 많은 왕들이 각각 자신들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작을 했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사라지고 자신의 꿈과 욕망으로 채워져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와 같은 인물로 사울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사울왕은 농가의 소년으로 훤칠하고 잘 생겼으며 누구나가 좋아했던 인물이었다. 무엇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울왕의 모습은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을 위해 행하였으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지도자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였고 좋은 가문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다.

사울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권위를 부여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부으심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어느새 질투에 자로 잡혀 살인을 꾀하는 영적 어둠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버림받게 된 왕이 되고 말았다.

우리는 사울을 묵상하며 그렇게도 훌륭한 시작으로 하나님의 대업을 이어 받았던 사울왕이 어떻게 그러한 모순된 결과를 낼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된다. 과연 무엇이 사울왕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의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시간이 지나며 자신의 야망과 명성에 대한 갈망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영적인 소망이 바로 세상적 소망으로 변한 것에서부터 시작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겠다고 했던 사울왕의 다짐이 어느새 세상의 사람들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고자 했고 그로인해 그가 명성과 명예를 얻고자 했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과거 선거전을 치룰 때 정치계의 전설이었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을 자신의 롤 모델로 생각하고 정치계에 뛰어 들었다고 한 적이 있다. 그런 그가 앞으로 과연 지난 대선에서 복음주의자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던 사실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어떤 정책을 펼쳐 나가고자 할까?

지금 미국 내 많은 복음주의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과 달리 미국이 전통적으로 지켜온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 우리는 다시 미국이 위대하게 부흥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 시작은 그가 말했던 "I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을 외치는 시작이 아니라 "Only God can make America Great Again" 을 미국의 대통령과 온 국민이 외칠 때 이뤄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말씀 앞에 오래 머무는 지혜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거룩한 독서다. 독서 가운데 거룩한 독서가 있다. 거룩한 독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다.

성경은 거룩한 책이다. 성경은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다. 성경을 읽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는 순간 거룩과 접촉하게 된다.

우리가 접촉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 우리가 더러운 것과 접촉하면 더럽혀 진다. 반면에 우리가 거룩한 것과 접촉하면 거룩해진다. 거룩하신 말씀, 거룩하신 성령님과 접촉하는 순간 우리는 거룩에 이르게 된다.

거룩은 아름답다. 거룩은 신성하다. 거룩은 고요하다. 거룩은 유쾌하다. 거룩은 신선하다. 거룩은 향기롭다. 거룩은 즐겁다. 거룩은 상쾌하다. 거룩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깨닫기 위해 잠시 더러운 것을 생각해 보자. 추한 것을 잠시 생각해 보자. 추잡한 것, 역겨운 냄새를 잠시 생각해 보자. 귀신은 더럽다(눅 6:18; 막 1:23). 더러운 귀신은 질퍽한 쾌락으로 사람들을 유혹해서 파괴시킨다.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한다. 심지어는 한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거룩을 추구해야 한다.

거룩한 독서를 위해서는 서둘러서는 안 된다. 시간을 내어 말씀 앞에 조금 오래 머물러야 한다. 지식과 정보를 위한 책은 속독이 좋다. 하지만 영의 양식으로 읽는 성경은 속독보다는 천천히 깊이 읽는 독서가 좋다. 너무 빨리 읽기 위해 서두르면 말씀 속에 담긴 깊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 거룩한 독서는 속도보다 깊이를 추구하는 독서다. 우리가 천천히 깊이 읽을 때 깊이 깨달을 수 있다. 또한 깨달은 진리를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다. 그때 말씀이 우리 존재 속에 스며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거룩한 독서의 목적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자연과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다. 자연은 일반 계시다. 자연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다. 그렇다고 누구나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다. 자연계시와 비교해서 성경은 특별 계시다. 하나님이 믿는 성도들을 위해 예비해 주신 특별 계시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지식을 얻을 수가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가장 고상하다(빌 3:8).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영원한 유익을 준다. 세상 지식은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필요가 없다. 반면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도 유익을 준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영혼에 기쁨을 주며 영원한 복락에 이르게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지식과 사랑은 비례한다. 우리는 아는 것만큼 사랑할 수 있다. 또한 사랑하는 것만큼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은 보지 못하는 가족을 사랑한다. 하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해야 한다. 거룩한 독서를 통해 성경을 읽을 때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초점을 맞추어 묵상하도록 하자.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관심을 갖고 성경을 읽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을 살피면서 성경을 읽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능력의 말씀이다. 치유의 말씀이다. 위로의 말씀이다. 새롭게 하는 말씀이다. 지혜롭게 하는 말씀이다. 소망의 말씀이다.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는 말씀이다. 사랑의 말씀이다. 거룩한 말씀이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 말씀을 통해 변화하고 성숙하게 된다. 말씀을 통해 더욱 지혜롭고 명철하고 총명한 사람이 된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얼굴과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도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총을 누리게 된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성경을 통해 우리가 읽혀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 읽혀주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성경에 읽혀질 때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회개하게 된다. 잘못된 것은 돌이키고, 잘하고 있는 것은 더욱 잘하게 된다. 거룩한 독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우리 자신을 만나게 한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안식과 배움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안식하며 또한 배움을 통해 변화하게 된다. 우리 모두 거룩한 독서를 통해 안식과 배움에 이르도록 하자.

특별 이벤트

PRO-Z USA에서는 그동안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특별 이벤트를 실시하오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하세요



한병 더

절호의 찬스
지금 구매하시면!
3병 +(1병 Free)
$267+Tax

*가까운 약국이나 건강식품점에서 구입하세요!



WHO is he?

개발자 송문기 박사

UCLA 의과대학 연구 교수
미, 재향 군인 병원, 수석 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에 등재
40년간 당뇨연구에 매진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자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Metabolism, Vol 47, No 1(January),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Cr Zn Cr Z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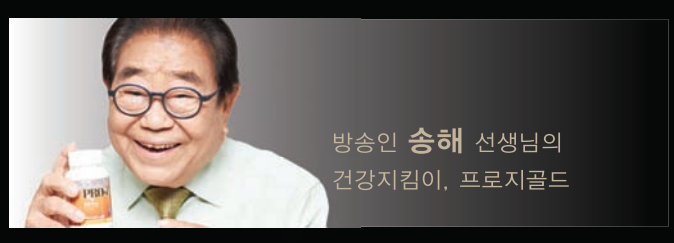
HIGH QUALITY
100%
천연성분

프로지 골드

PRO-Z GOLD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방송인 **송해** 선생님의
건강지킴이, 프로지골드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인슐린의 저항성을 낮추어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과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문의 전화 213. 434. 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지난해 할랄단지에 반대하는 강원 지역 시민단체들의 집회 모습.

정부 '할랄식품' 문제 원점으로 되돌려야 해

교회언론회 논평 통해…국가 재정 낭비와 안보 타격 우려

한국교회언론회에서 21일 '정부의 할랄식품 문제는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할랄산업 육성은 입안(立案)과 실행과정에서 상세한 검토 없이, 즉흥적인 발상이란 비판을 받아 왔다"며 "최근 측근들에 의한 소위 국정농단 문제가 불거지면서, '할랄 식품' 문제가 왜 갑자기 국정의 핵심과제처럼 떠올랐는지 밝혀져, 국민들을 실망케 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가을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이 할랄 인증식품 수출실적 자료를 요구하자 '수출실적을 집계하는 통계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며 "또 할랄 인증 도축·가공 시설 건립이 현행 '동물보호법'과 충돌,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런데다 할랄식품은 신선육을 유지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구제역 청정국으로는 55일, AI 청정국 지위 유지는 지난 2014년 이후 60여 일에 불과해 어차피 무슬림 국가들에 육류를 수출하는 것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지원이 무원칙하다"는 비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회언론회는 "지난 2년 동안 해양수산부가 수산식품 할랄 인증에 지원한 돈은 5억 7천만 원이고, 건수는 51건"이라며 "이는 한 건당 1천 만원의 국민 혈세를 지원한 것인데, 굳이 '할랄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수산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이들은 "정부는 '할랄산업'에 대하여 다시 면밀히 검토해, 그 허구에서 속히 벗어나야 한다"며 "잘못된 정책과 판단은 국민들을 혼란케 하고, 국가 재정의 낭비를 가져온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이슬람 끌어들이기를 통해, 안보에까지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정부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왼쪽은 각국의 할랄 인증 마크들이다.

이지희 기자





김선규 총회장(가운데)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총무 김창수 목사, 김 총회장, 서기 서현수 목사.

"한교총 참여, 신학·전통 포기 아냐"

예장 합동 김선규 총회장…기자회견 갖고 반발에 해명

예장 합동의 김선규 총회장이 최근 출범한 (가칭)한국교회총연합회(한교총)에 대해 "한교총에 참여한다고 우리 신학과 전통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며 "연합해 대응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총회장은 23일 오후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김 총회장이 한교총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두고 교단 내에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WCC(세계교회협의회) 가입 교단들과 함께 활동할 수 없다"는 등 반발이 생긴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총회장은 또 "한국교회에는 우리 교단과 같은 보수적인 입장의 교회들도 많고, 또한 진보적인 교단들도 있다"면서 "이들은 그 신학적 입장에 따라 상반된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기 때문에 서로 적대적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점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교총 참여가 교단 내 관련 위원회의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지난 제101회 총회에서 연합활동에 대한 문제를 임원회에 위임했다"고 답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가입 여부에 대해선 "임원회에서 아직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총신대학교(총장 김영우)가 재단이사회 파행으로 '임시(관선)이사' 파송 위기에 직면한 것과 관련해선, "안명환 재단이사장 직무대행이 임시이사가 파송되기 전에 이사회를 정상화 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총회가 여기에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 도울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월 6일, 현 총신대 재단이사들을 상대로 그 동안 이사 선임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 등을 직접 들을 예정이다. 만약 이 날까지 이사회가 정상화 되지 못하면 현 이사들은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김진영 기자

초·중·고 성교육에 동성애 제외 교육부 결정은 지극히 당연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외…26개 시민단체 일제히 환영

교육부가 '동성애' 등의 내용을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초·중·고등학교 성교육 때, 동성애를 옹호·조장 교육을 하지 않겠다는 교육부의 결정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지난 21일 교육부는 '학교 성교육 표준안 및 성교육 자료에 대한 정책연구 결과'를 기초로 성교육 자료 내용 일부를 수정해서 3월 새로운 학기 학교들에 배포할 계획이라 전했다.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교육부가 학교의 성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2015년 3월 도입한 약 40페이지 분량의 성교육 가이드 라인으로, 별도의 교사 참고자료와 함께 각 학교에 파일 형태로 배포됐다.

그러나 성교육 표준안에 동성애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성소수자 인권을 무시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일부 여성단체들과 동성애 옹호 시민단체들이 성교육 표준안을 철회하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에 교육부는 2016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성교육 표준안 수정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했고, 그 결과가 나온 것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결론을 통해 "성교육 표준안 자체는 수정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지만, "교사용 참고 자료는 남녀 성차별적 고정 관념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동성애를 포함하는 성소수자 문제와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대한 내용, 성적자기결정권 등에 대해서 표준안에 포함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다양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중장기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교육부는 이러한 결론이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 언급을 무조건 봉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밝히고, 만일 수업 시간 중 토론은 가능하지만 표준안에 내용을 집어넣어 의무적으로 가르치게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등 26개 시민사회 단체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자녀들이 동성애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학부모 입장에서 교육부의 이번 결정에 환영"한다면서 "이것은 우리의 아들 딸, 나라의 미래를 위해 당연한 결정"이라 이야기 했다.

이나래 기자



집회 참가자들이 배도행위 중지를 외치며 시위를 하고 있다.

"가톨릭과 신앙·직제 일치 배교행위 멈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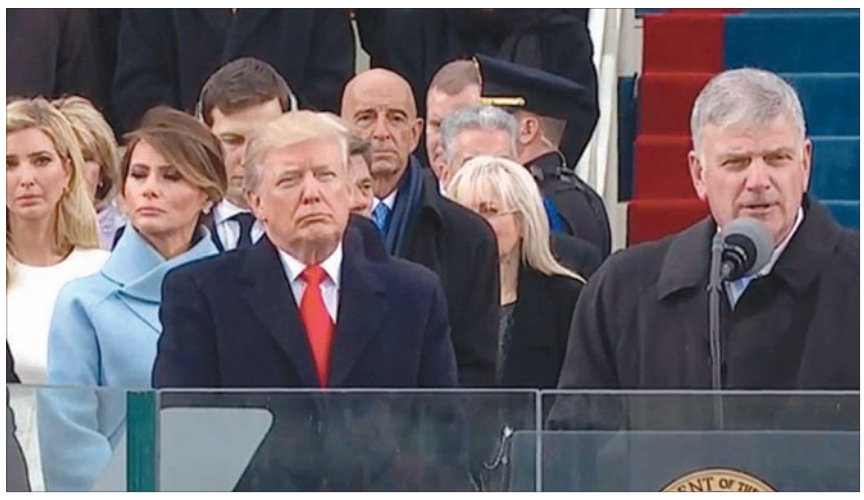
보수기독교 단체들…신앙과직제협 일치기도행사장 앞 반대집회

지난 24일 저녁 옥수동루터교회에서 한국그리스도교 신앙과직제협의회(이하 신앙과직제협) 주최로 '2017년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기도회'가 열린 가운데, 교회 앞에서는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예장통합 비대위와 선한이웃, G&F미니스트리, VOCD 인터네셔널 등 보수 기독교 단체들은 이날 집회를 통해 "마리아교 가톨릭과 신앙·직제 일치하는 배교행사! 과연 '종교개혁500주년'에 할 일인가?"라며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배도의 범죄 행위'를 멈추라!"고 했다. 행사는 '오직예수사랑선교회'가 주관했다.

홍은혜 기자





트럼프 옆에서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가 축하의 말을 전하고 있다. ⓒBGEA 제공

도널드 트럼프 제45대 美대통령 취임식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도…기도와 축하의 말 전해

[1면으로부터 계속] 그러면서 "그렇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며 모든 미국인들과 미국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길 바라는 것으로 취임연설을 끝냈다.

지난 미국 대선 당시, 많은 복음주의자들의 지지를 받았던 트럼프 대통령은 그 역시 보수적 장로교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미국 내 기독교인들은 그가 미국이 전통적으로 이어온 기독교적 가치를 지켜줄 것을 바라고 있다.

특히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는 등, 동성애가 미국에서 점차 그 영향력을 확대해 가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에 제동을 거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출간한 책 'Great Again'에서 "사람들이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 것 같다. 그들 대부분은 내가 부자라는 것에만 관심을 둘 뿐, 내게 신앙이 있다는 것은 보지 못한다"면서 "그러나 그것은 나를 정확히 아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었다.

그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한 기독교 사상가는 "신앙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 마련"이라면서 트럼프의 말보다 그의 실제 삶을 통해 그가 진정한 기독교인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CNN은 지난해 대선 당시, 트럼프가 그의 나이 41살 때 자신의 일상을 기록한 책에서 그의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었다.

또 트럼프가 비록 선거 운동 기간 중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긴 했으나, 이는 기독교인들의 표를 의식한, 그야말로 '표퓰리즘'이었을 뿐, 그가 대통령 취임 후에도 그와 같은 입장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선 장담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미국의 조사기관인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3분의 2가 미국의 대통령이 강한 종교적 신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자인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 빌리 그래함 목사의 아들이기도 한 그도 도널트 트럼프 美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기도하고, 새롭게 미국을 이끌어 갈 트럼프 대통령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최근 크리스천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그래함 목사는 이날 취임식 도중 비가 내리자 "성경에서 비는 하나님의 복을 의미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당신이 단상에 오르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가족,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당신이 해야 할 일들 위에 복을 내리실 것"이라고 했다.

그래함 목사는 특히 사도 바울이 믿는 자들에게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권면한 성경 디모데전서 2장 1~6절을 읽었다.

이후 그는 자신의 SNS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어 매우 영광이었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우선 기도해야 한다. 그들이 더욱 지혜로워지고 옳은 길을 걸으며, 그 자신 뿐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 더욱 은혜로워지길 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도한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 이외도 폴라 화이트(플로리다 뉴데스티니센터) 목사, 사무엘 로드리게스(전미히스패닉기독교지도자콘퍼런스 회장) 목사 등이 개신교 대표로 참석했다.

김진영 기자



백악관 동성애자 홈페이지 ⓒ백악관 홈페이지 캡쳐

트럼프 취임 후, 백악관 홈페이지서 '동성애자 권리' 사라져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 취임 1시간 후,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동성애자 권리(LGBT RIGHTS)와 관련된 페이지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대표 김지연) 등은 한 블로그 소식지를 인용해 "트럼프 취임 후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은 동성애에 대한 변화"라면서 "트럼프의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동성애자 권리(LGBT RIGHTS)에 관련된 페이지가 삭제됐다"고 전했다.

현지 언론 techcrunch.com은 "오바마 정부는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LGBT 페이지를 성전환자들을 위한 입법부 업적으로, 역사적 승리의 하나로 강조해왔다. 삭제된 페이지는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위한 캠페인을 '자살 충동과 싸우고 있는 LGBT 공동체를 돕기 위한 더 없이 좋은 캠페인'으로 소개하며 강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이 캠페인 페이지는 '권리 강화'라는 페이지로 자동적으로 이동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변화될 전망이다. 현재 LGBT에 대한 어떤 언급도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PEOPLE POLITICS는 "트럼프의 백악관 홈페이지가 동성애자 권리(LGBT RIGHTS)를 치워버렸다"고 보도했다.

또한 thedailybeast.com도 "동성애자 권리(LGBT RIGHTS)가 사라졌다"고 보도했다.

강혜진 기자

교회 및 선교회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 - 버질중학교 / 토요새벽 - 1가와 버몬트 코너
주중새벽-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20 수요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
연제선 담임목사
LA 온하늘교회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90019
T.(818)983-9024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90006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믿음교회
피난처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매일 성경통독 (월~토) 오전 7:0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1508 S. Vermont Ave., LA, C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1부 오전 8:0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주일예배3부 오전 11:00
박영천 담임목사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

1부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30
EM 예배 오후 1:00 토요공부방 토 오전 9:30~12:30
한어청년부 오후 1:30 어머니기도모임 수 오전 10:30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영적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영적 리더쉽을 발휘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la.org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헌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3281 W. 6th St., LA, CA 90020
T.(213) 383-2600 ,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11:00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9:00 유초등부,중고등부 오전11:00
2부예배 오전11:00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주일 오후 1:30
수요집회 오후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분 (화-금)
오전 6:00 (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10:30
EM예배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30 목요찬양예배(목요일)오후 7: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0:30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0:00
조인수 담임목사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주일오후 12:00
토요탈북민 모임 오전 11:00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장로교회 엔키아 선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407 W. 6th St. #412, Los Angeles, CA 90006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김요섭 담임목사
열매교회
전도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323)737-3009 C. (213)215-8523

1부예배 오전 0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김종호 담임목사
예향선교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w@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30 금요기도회 오후9: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3부예배 오전 1:3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25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F.(818)549-9199 / choonghyun.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오전10: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주일감사예배 : 주일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 저녁 8:00 새벽기도회 : 오전5:30(월~금)
금요성령집회 : 저녁 8:00 새언약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10:30
교회학교(Child Youth) : 매주 주일 오전 11:00
강양규 담임목사
남가주 새언약교회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
3407 W. 6th St, #601, #620, LA, CA 90020
T.(213)465-9693, (213)434-1083 www.new2011.org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대표 **주해홍** 목사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Ezra Bible Reading Ministry
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

LA동부, 팜스프링스지역,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이희철 담임목사
갓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성경공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영어회중예배-주일 오후 1: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공동체, 성령공동체, 선교공동체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872-2405 교회 , (503)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새벽예배 오전(월-금)5:30 (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92405
T.(909) 388-2940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오전 11시 (본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매일QT 월~금 오전 6: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최승목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금요기도회 오후 8:00
이승준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수요예배 오후 7:3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사우스베이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젼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isvision.org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열린예배 오후 1:30
이호우 담임목사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 KPCA 해외한인장로회 교단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EM예배 오후 1:30
한어청년부 오후 2:15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샬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EM 1부 9:30/ 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구원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EM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금요성령대망회 금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7:00 (토)
오후 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hurch.com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EM예배 오후 12:30
유년부 오전 10:30
중고등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유년부 오전 11:00
EM 오후 1: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Awana 오후 8:00(금)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전 9:30
주일 3부 오전 11: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EM예배 오후 1: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EM/YOUTH 예배 오후 1:30
유.초등부 예배 오후 1:30
새벽 예마 기도회 오전 5:30(월~금)
금요예마기도회 오후 7:45
박정환 담임목사
예수인교회
Christian Missional Church
10452 Louise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434) 229-6597 / cmc-12.com / yesuin12@gmail.com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김인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가 되어 3300 세계비전을 이루는 생명공동체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8: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 (818)363-5887
LA예배처소
주일 1부 예배 오전 8: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3460 Wilshire Blvd, Ste 700, LA, CA 90010
Tel: (213) 232-3163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처치리더스닷컴

교회가 '동성애·낙태 반대' 목소리 내야

美보수단체, 기독교적 가치 수호 촉구

미국의 보수 기독교 단체인 미국가족협회(America Family Association, AFA)가 동성애와 낙태에 반대하며 기독교적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18일 AFA 워커 와일드먼 부회장은 성명을 통해 "지난 몇 년간 우리는 동성애와 낙태의 수용을 강요하는 문화와 싸워왔다. 창조 이후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종류의 성적 일탈과 무고한 생명의 살인을, 공공장소나 특히 교회에서 수용할 수 없는 2가지 끔찍한 죄로 여겨왔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와일드먼 부회장은 "기독교인들이 이 아젠다에 있어서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기독교인들은 대중적인 비난을 피하기 위해 뒤로 물러나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회는 이러한 이슈를 직면함에 있어서 수동적인 태도를 보인데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성경적인 원리를 수호하기 위해 믿는 자들이 공공정책 분야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3가지 중요한 영역을 △낙태 △학교선택 △종교 자유로 꼽았다.

와일드먼 부회장은 "지난 8년 동안 기독교인은, 자신들의 신념에 있어서 정부 관계자들에게 소외돼 왔다"면서 "동성결혼에 반대하여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플로리스트, 제빵사, 다른 사업 종사자들이 차별금지법안 소송에서 패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만약 미국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이에 관여하게 된다면, 지역 교회 뿐 아니라 대중적인 영역에서도 우리는 머지 않은 미래에 미국에서 발생하는 긍정적인 변화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낙태 반대 단체인 미국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에 대한 후원을 철회하는 일, 학교 선택을 허용하는 일, 종교자유의 신장 등의 변화들이 과거 수 십년 간 이 땅을 덮고 있던 영적 어둠의 무게를 분명하게 거둬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의 영적인 부활을 위해 많은 사역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교회를 각성시키는 것이 이 노력 가운데 가장 첫번째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강혜진 기자



영국성공회 총회가 열리고 있다. ⓒ영국성공회

英 성공회, 동성애 성직자에 순결 요구 조항 삭제할까?

英성공회가 동성애 성직자에게 순결을 요구해 온 규례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英크리스천투데이가 선데이타임즈를 인용해 최근 보도했다.

기존 규례에 의하면, 동성애 관계를 오래 유지한 성직자라 할지라도 새로운 역할에 지원을 하거나 승진을 위해서는 성적 순결을 약속해야 했다.

그러나 다음 달에 총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개정안에서는 이 요구조건이 삭제될 전망이다.

선데이타임즈는 "동성애 사제들은 여전히 '성관계는 오직 이성간 결혼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교회의 가르침을 지켜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들을 지도하는 이들은 이에 대해 물어보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교회 사제단(The Church's House of Bishops)은 23일 회의를 통해 2월에 개최되는 총회 전까지 제안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동성애자 기독교인들도 반드시 온전히 환영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겠지만 교회 내 동성결혼에 대한 축복을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안은 지난 2013년 영국 의회가 동성결혼을 합법화 한 이후 영국성공회에서 동성애와 관련된 장기적인 논쟁을 벌인 끝에 나왔다.

강혜진 기자

프랑스 내 기독교 혐오범죄, 지난해만 38% 증가

2015년 273건에서 2016년 376건으로 늘어나

작년 한 해 동안 프랑스에서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공격이 더욱 심해졌다고 英크리스천투데이가 최근 온라인 매체 브레이트바르트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신앙과 관련해 발생한 사고가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익단체인 'Observatoire de la Christianphobie'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프랑스 내 '기독교혐오성' 공격은 2015년 273건에서 2016년 376건으로 증가했으며 대부분 작년 12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회를 비롯한 예배 장소에서 가장 많은 공격이 발생했다. 한 교회의 벽은 신성모독적인 낙서로 훼손됐다. 프랑스 북부 Fournes-en-Weppes에 소재한 성당 기념관에 놓인 예수 그리스도상도 비슷한 낙서 공격을 받았다.

가장 악명이 높았던 사건은 자크 하멜 신부를 상대로 발생한 공격이다. 생테티엔 뒤루브래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던 하멜 신부는 2명의 IS의 추종자인 아델 아델 케르미슈(19)와 압델 말리크(19)에게 살해를 당했다. 도미니크 레블룬 대주교는 하멜 신부의 장례식 도중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로고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던 이들을 향해 "마귀적·살인적 광기에 빠진 당신들은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충고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당신을 위해 기도한다. 악한 세력 아래 놓인 모든 이들을 치유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수단교회.

수단 기독교 목회자, '전도 및 교회 활동' 이유로 추방당해

수단의 한 기독교 목회자가 지난해 12월 '전도 및 교회 활동'을 이유로 수단에서 추방됐다고 英크리스천포스트가 모닝스타뉴스를 인용해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작년 12월 6일 남수단 수단오순절교회(Sudan Pentecostal Church)의 코아트 아코트 담임목사는 3일 이내로 수단을 떠나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앞서 11월 18일에는 외국 NGO 단체를 위해 일한다는 혐의로 수단 국가정보안전국(NISS)에 의해 체포돼 3주간 매일 보고서를 써야 했다.

아코트 목사는 카르툼과 옴두르만에 3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도왔으며 교인 수는 700명에 달한다.

수단은 박해감시단체인 오픈도어즈가 발표한 2017년 박해국가순위에서 5위를 기록했다. 수단에서는 기독교인이 되는 일이 가장 어렵고, 종교박해 역시 극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수단에서 기독교인 박해를 포함한 종교자유침해가 지속되자 1999년 미국무부는 수단을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했다.

이 가운데 2015년 간첩혐의로 4명의 기독교인이 수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이들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려 했다는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쿠와 샤말 목사와 함께 체포된 핫산 압둘라힘, 체코인 구호활동가 페트르 자세크, 그리고 학생인 압둘모넴 압두마울라 3명은 국가안보위협 혐의 외에 국가 변란 모의, 스파이 혐의 등이 적용됐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이들은 사형이나 종신형을 받을 수 있다.

강혜진 기자

IS, 시리아 팔미라 고대 원형극장 등 고대 유적 파괴

수니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시리아 고대도시 팔미라에서 고대 유적들을 파괴했다고 英크리스천투데이가 2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시리아 당국자는 "4개의 기둥으로 이뤄진 테트라필론(Tetrapylon)과 로마 양식의 고대 원형극장도 일부 파괴됐다"고 로이터 통신에 전했다.

팔미라에는 테트라필론 등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고대 유적들이 보존돼 있다.

시리아 당국자인 압둘카림이 로이터 통신에 보내온 위성 사진에 의하면, 4개 테트라필론의 총 16개 기둥 중 3개만 남아있고, 받침석은 돌무더기로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대 원형극장의 무대에 세워진 기념물들도 심각하게 훼손됐다.

압둘카림은 "만약 IS가 팔미라에 계속 남아있다면, 더 많은 유적들을 파괴할 것이다.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작년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0일 사이에 유적들을 훼손했다"고 전했다.

IS는 작년 12월 시리아 정부로부터 팔미라에 대한 통제권을 탈환했다. 6년 간의 내전 동안 팔미라를 2번 점령한 것이다.

IS는 지난 2015년에도 10개월 간 팔미라를 점령했었다. 당시 압둘카림은 "IS가 역사적인 도시를 점령한 것은 곧 '문명의 멸망'을 의미했다. 인류와 문명화된 사회는 야만과의 전쟁에서 패했다. 우리는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시리아 정부는 동맹군과 러시아 공군의 도움으로 작년 3월 IS 세력을 도시에서 몰아내는데 성공했으나, 당시에도 IS는 1,800년 된 개선문을 포함해 다른 유적들을 파괴해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다.

이 장소의 유적은 대부분 1세기나 2세기 로마 시대의 것으로 당시 팔미라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한편 시리아인권관측소에 따르면, IS대원은 최근 팔미라의 고대 원형극장에서 12명을 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희생자들 가운데 4명은 교사, 4명은 군인, 4명은 반란군이었다.

강혜진 기자

시리아 난민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전쟁에 찌든 중동 지역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에게서 강력한 간증과 구원의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다.

자선단체인 '리딩더웨이'(Leading The Way)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선 단체 중 하나이다. 이 단체는 최근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삶을 통해 희망을 발견한 이들의 이야기를 계속 전하고 있다.

한 시리아인 여성은 이름도 '희망'이라는 뜻의 '리마'로 바꾸었다. 그녀의 집은 파괴되었고, 남편은 레바논으로 망명을 신청하러 떠났다가 실종됐다. 현재 가족은 아들 2명 뿐이다. 그녀는 살을 에는 듯한 추위 속에 7시간을 걸어 레바논 국경에 도착했고, 이곳에서 제한된 아파트를 공급받아 지내고 있다.

리딩더웨이는 "믿을 수 없는 상황들이었고, 우리 팀원 중 한 명이 그녀의 집을 방문해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었다"고 했다.

리딩더웨이의 박해 사역팀 코디네이터인 메리는 리마의 생활 환경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그녀는 "우리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광경을 보았다. 그녀의 집에는 문, 창문, 난방기구도 없었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다.

박해 사역팀은 그녀를 다시 방문해 따뜻한 옷가지, 의약품 등을 제공하고, 열병이 난 10살 된 그녀의 아들을 위해 난방기구를 선물해주었다.

이들은 리마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오디오 성경(Audio Bibles)도 건네주었다. 그러나 리마에게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그리스도였다.

라이프웨이 부회장인 조슈아 유세프는 "리마의 이야기는 구원받은 많은 이들의 이야기들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주께 나아오는 많은 이들을 통해 큰 희망을 그리고 있다. 한 번은 400명의 시리아인 개종자들이 있는 교회에 간 적이 있었다. 그 다음 교회에는 250명이 있었고 이들은 주일에 5번의 예배를 드렸다. 단 2교회인데 그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번 기회를 이용해 많은 이들을 돌아오게 하고 있다. 이는 시리아의 미래에 큰 유익이 된다. 그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시리아로 돌아가면 새롭게 개종한 기독교인에 포함된다. 이 점이 가장 날 가장 흥분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O.C./얼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주일 9:00AM 주일예배 2부 주일 11:00AM 주일학교 주일 11:00AM 대학청년부/E-college 주일 2:00PM 제자훈련/사역훈련 화~목 7:30PM
새벽예배 월-금 5:30AM 토 6:30AM NEXT한국학교 토 9:30AM~1:00PM NEXT Kids club 주일 12:40AM~1:40PM
김일영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NEXT Sa-Rang Church
11 Musick Irvine, CA 92618 Tel (949)829-0010(office)
www.nextsarang.com

주일예배 (1부) 10:00am (2부) 1:3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화요중보기도회 7:00pm
수요돌파기도회 9:00pm 금요온전철야예배 8:00pm ~ (다음날) 7:00am 토요청년예배 7: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 오후 7: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셀가족 예배 :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벧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806-2562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11:00 영 유아부 오전 11:00 유 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 오전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EM,대학부 오후 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토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te)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an.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박재만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3111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2부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토요새벽 오전 6:00 본당 금요공부 저녁 8:00 본당
허귀암 담임목사
놀웍연합감리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3000 San Antonio Dr., Norwalk,CA 90650
T.(562)802-4959 C.(714)308-7308 / usa8291@gmail.com

주일예배(KM) 주일11:00am 영어예배(EM) 주일 9: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금요찬양예배 8:00pm (매월 두번째 금)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11:30 금요예배 오후8시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EM주일 오전11:30 교육부 오전11:30
김일권 담임목사
다감사교회
The Gamsa Community Church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988-3321, www.dagamsa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8:30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토 새벽 6:20
고현종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1부예배 오전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30
금요 Alpha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이 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일본어 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 기도모임 오후 8:00 토요한글학교, 에프터스쿨
P-kinder(Korean) 오전 11:00 Children(1-6) 오전 11:00 Youth(7-12) 오전 11:00 College 오후 1:00
이동준 담임목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250-1111 / www.beautiful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중등부 오전9:15 고등부 오전11:30 한어부 오전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권혁빈 담당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주일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홍성준 담임목사
얼바인 한믿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2:00 FAME예배 오전 11:30 (청년 영어)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장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박경호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예배 오전 9:00 &10:30 새벽예배 화~토 5:30, 토 6:00 금요예배 오후 7:30
김민재 담임목사
예친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4221 Rose Dr., Yorba Linda, CA 92886(Worship Center)
T. (714)788-3677 / www.yechinchurch.com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주일1부예배 오전8:15 주일2부예배 오전10:00 주일3부예배 오전11:45 영어주일예배 오전10:00
유년부,초등부예배 오전11:30 영어중고등부예배 오전11:30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10: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5:30, 토,주일 오전6:00
엄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3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수요기도회 : 오후 8:00 새벽기도 :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플러튼 채플 Fullerton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목요영성집회: 7:45pm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T. (657)217-5558

주일 섬김이 예배 : 오전 9:00am 주일 한국어 예배 : 오전 11:00a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전 11:00am
금요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pm 새벽기도: 월-금요일 오전 5:30am 토요일 오전 6:00am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om
E-mail : info@Pottersc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조원재 담임목사
하나님의 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1등 아메리카 대륙
푸른투어LA
cst# 212654040
PRT Tour & Consulting

문의전화 (213)739-2222 인터넷예약 www.PRTTOUR.com

뉴저지 본사 (201)313-0899 725 Grand Ave #305 Ridgefield, NJ 07657
플러싱 지사 (718)928-3333 154-08 Northern Blvd #2B Flushing, NY 11354
로스엔젤레스 지사 (213)739-2222 3170 W. Olympic Blvd. #A Los Angeles, CA 90006
토론토 지사 (647)686-6000 5467 Yonge Street, Suite 2B Toronto, ON. M2N 5S1
서울 지사 (02)739-0890 Doosan We've 58 #1238 Jongno-gu, Seoul

여행설계사 데비드강의 여행이야기 AM 1650 매주 화 1:30pm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성지순례와 문화탐방"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유럽 4개국 성지순례와 문화탐방
8일 $2,600 ▶4/24 (항공포함)

▶프랑크푸르트 – 하이델베르그 – 프라이부르그–루째른 –취리하–로텐부르크 프라하 – 드레스덴 – 비텐베르크– 라이프치히 – 아이제나흐 – 프랑크푸르트

① 황태자의 첫사랑 하이델베르그 & 칼뱅 종교개혁지 순례
② 유네스코 문화유산 쯔띠 프랑스 스트라스버그
③ 호반의 도시 스위스 루체른 & 츠빙글리 취리히
④ 보헤미안 천년성 체코 프라하와 얀후스 개혁지
⑤ 종교개혁 메카 루터 비텐베르크 & 라이프치히



성경속 산책 노아의 방주 테마파크
5일 $999 ▶4/17 (항공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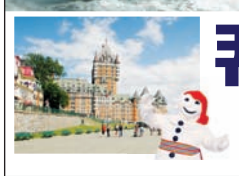
▶시카고 – 인디애나 폴리스 – 신시내티 – 인디애나폴리스 – 신시내티

① 시카고 시티 투어 – 밀레니엄 공원 / 시청
② 인디애나 폴리스 주 의사당 외부관람
③ 창조박물관 – 성경 창세기의 천지창조 기록물을 보관
④ 노아의 방주 테마파크 ARK투어 – 실물크기의 노아방주 모형
⑤ 신시내티 내셔널 언더 그라운드 레일로드 프리덤 센터
⑥ 링컨생가 및 뮤지엄 – 남북전쟁에서 노예 해방을 이끈 대통령의 생가, 뮤지엄
⑦ 맘모스 케이브 국립공원 (세계최장 동굴) – 켄터키 주에 있는 메머드 동굴

태평양 연안 강촌 같은 간이 마을 기차 나들이
특선 산상품 1 스페인 풍의 산클레멘테 피어 바다 물놀이의 천국 오션사이드
$99 오션사이드 당일 기차여행
▶출발 : 매주 토요일
– 기차요금 포함 / 중식 포함 / 가이드 팁 포함

나비축제와 온천을 함께 즐기는 1석 2조 여행
특선 산상품 2 남가주 사진 작가협회 회원들과 함께 하는 사진여행
$199 모나크 나비 축제 / 온천 1박2일
▶출발 : 1월 28일
– 피스모비치 / 아빌라 비치 / 샌시미온

미국 본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지점인 휘트니 산 관망
특선 산상품 3 캘리포니아 데저트 지역 완전정복
$179 데스밸리 1박2일
▶출발 : 2월 9일
– 데스밸리 핫 스프링 온천 / 쟈브라스키 포인트 / 샌드 던 모래사막


퀘벡 퀘벡 윈터 카니발 4박 5일 $899 (항공포함)
환상의 아이스호텔 ▶1/28, 2/8
캐나다 동부 [샤토프롱트낙 호텔] 4박 5일 ▶매주 금 $1,299 (항공포함)


일본 북해도 온천+동경까지 6박 7일 $3,199 (항공포함)
▶특별출발 : 2/15
– 노팁! 노옵션!으로 자유로운 여행 – 호수마을 도야에서 온천욕

이민 선조들의 발자취 따라 떠나는 여행
캘리포니아 과수원 꽃 길 여행
1박 2일 ▶2월 27일 $179
– 아몬드 자두꽃 감상 / 리들리 / 베이커스 필드

100명 선착순 모집~ 서두르세요~
3차 / 조슈아 트리 온천여행
1박 2일 마감임박 서두르세요 ▶2월 6일 $99
– 샌하신토 케이블 카 / 아울렛 / 온천

아~아~ 대한민국 / 티켓만 구입 가능 ($100/$80/$60)
정수라 콘서트 투어
당일 투어 ▶2월 12일 $99
– 팜스프링스 시내관광 / 카버존 아울렛 / 콘서트 관람

전세계 유일 '설국열차' 타고 알래스카 횡단 (12시간)
알래스카 오로라 기차여행
4박 5일 ▶목요일 $1,300 +항공
– 페어뱅스 역사 박물관, 얼음호텔, 산타마을 등

미 서부, 동부, 캐나다, 한국 모든 여행을 푸른투어 5개 지사에서 직접 진행합니다.


미서부

다른회사와 차별화된 미서부 관광
1 라스베가스 특급호텔 몬테카를로 호텔 숙박
2 다럭스 리무진 라스베가스 야경 투어

3대 캐년 4일 $389
3대 캐년 +요세미티/샌프란시스코 7일 $689
▶매주 월 그랜드 캐년 / 브라이스 캐년 / 자이언 캐년
4대 캐년 4일 $389
4대 캐년 +요세미티/샌프란시스코 7일 $689
▶4일 매주 화 – 7일 매주 화/토 3대 캐년 + 앤텔로프 캐년
그랜드 캐년 / 라스베가스 3일 $299
▶매주 화/토
요세미티 / 샌프란시스코 4일 $389
▶매주 월/목/금/토
미서부 실속 여행 6일 $5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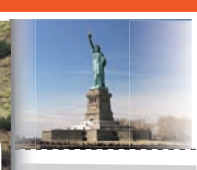
푸른LA 일일투어
▶수/금 $99
(전용차량, 한인가이드)
올베라거리/다운타운/다저스스타디움/그리피스천문대/헐리웃거리/로데오거리(차창관광)/산타모니카해변/파머스 마켓/그로브 몰 등

"9대 캐년 완전정복" 그랜드 써클
6박 7일 $829 ▶3/24, 4/8, 4/28
그랜드 캐년 / 브라이스 캐년 / 자이언 캐년 / 아치스 캐년 / 앤텔로프 캐년 / 모뉴먼트 밸리 / 캐피틀 리프 / 캐년 랜즈 / 글렌 캐년

"특급 몬테카를로" 미서부 4대 캐년
3박 4일 $389 ▶매주 화 출발
자이언 / 브라이스 / 앤텔로프 / 그랜드 캐년



라스베가스 특급 몬테카를로 호텔 숙박
최고급 디럭스 리무진 야경투어~


미동부


"가주교육신문과 함께하는 봄방학 특선"
명품 IVY 리그 5박 6일 $1,399
– 예일대학에서 정태현 박사과정 특강 1시간 ▶3/28 4/4

5박 6일 브라운/예일/하버드/MIT/프린스턴 유펜/존스홉킨스/콜롬비아 ▶매주 화/토 $1,399
7박 8일 브라운/예일/하버드/MIT/프린스턴 유펜/콜롬비아(나이아가라) ▶매주 수 $1,499
① 재학생 투어 총 3회 〈예일/하버드/유펜〉 ② IVY 전문 가이드와 함께 캠퍼스 투어 ③ 3명 이상 출발

1 푸른 유일 $100상당의 3대 옵션 포함 – 타사 비교 요망
1) 자유의 여신상 2)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입장료 3) 시닉터널
2 서부 여행사 유일하게 타사위탁이 아닌 푸른이 직접 행사

실속 미동부 5일 (뉴욕/워싱턴 DC/나이아가라) ▶매주 수/토 $799 (항공포함)
미동부 6일 (미동부 5일 + 토론토) ▶매주 수/토 $899 (항공포함)
미동부/보스턴 7일 (미동부 5일 + 보스턴/뉴포트) ▶매주 수/토 $1,049 (항공포함)
미동부/보스턴 8일 (미동부 6일 + 보스턴/뉴포트) ▶매주 수/토 $1,099 (항공포함)
미동부/캐나다 8일 (미동부 6일 + 몬트리올, 레이크조지, 퀘벡) ▶매주 수/토 $1,099 (항공포함)
미동부/보스턴 캐나다 10일 (미동부/캐나다 8일 + 보스턴/뉴포트) ▶매주 수/토 $1,299 (항공포함)

1등 아메리카 대륙
푸른투어LA
PRT Tour & Consulting
cst# 212654040
213.739.2222
인터넷예약 www.PRTTOUR.com

무료픽업 가능 : 가든그로브/토렌스/세리토스/가디나/다이아몬드 바

광고상의 모든 컨디션, 가격, 일정, 호텔 등은 현지사정에 의해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항공상품은 비수기 기준으로 성수기시요금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19)

팔복교회(Church of Beatitudes)


갈릴리 호수에서 팔복산을 향하여 오르는 길.


팔복교회 앞 전경.


팔복교회 전경.

◈팔복교회로 가는 길

지난 호에서 요단강 세례 터 야르데니트(Yardenit)를 방문하고 티베리야스(Tiberias) 시내에 여장을 풀었다면, 아침 일찍 팔복교회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게 된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특히 갈릴리 호수 북서부 해안 주변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사역 장소를 많이 만날 수 있게 된다. 그중 제일 먼저 팔복교회가 있는 베아티투투데스(Mount of Beatitudes)로 가본다.

티베리아스 시내에서 팔복교회가 있는 행복산까지는, 갈릴리 호수의 싱그러움을 맛보면서 서안을 따라 90번 도로를 타고 북상하면 10.19마일(16.4km) 약 20분 정도가 걸리는데 그곳에 아름다운 팔복교회가 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간다면 갈릴리 가나를 거쳐 65번 도로를 타고 티베리야스 시내를 거치지 않고 바로 북, 동진 하면 된다. 31마일(49.4km) 떨어져 있고, 차로는 약 48분 정도가 소요된다.

팔복 산 중심으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타브하는 2마일(3.5km), 가버나훔은 4마일(6.1 km), 벳세다는 6마일(9km), 거라사는 14마일(23km), 고라신은 2마일(4km) 떨어져 있고, 가장 멀리 이스라엘 최북단 헬몬산에 있는 스키 리조트(Ski Resort)까지는 48(76.5km) 1시간 16분이 소요된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역 장소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갈릴리와 데가볼리 심지어는 93마일(150km) 이상 떨어진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 또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좇아왔다.

혹시 내 병이 고쳐질까 하여 기대 반 호기심 반으로 삼삼오오 모여든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마4: 23~5:13)

(1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Et Beati pauperes spiritu), (2복)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Qui lugent: beati), (3복)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Beati qui lugent), (4복)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Beati qui esuriunt et sicca collum), (5복)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Beati misericordes: hic autem), (6복)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Hic sunt mundo corde beatae), (7복)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Suspendisse autem pacis, qui benedictus est), (8복)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Nunc enim persecuti sunt beatus).

팔복교회가 있는 행복산은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타브하의 위쪽에 있는 능선이다. 갈릴리 바다가 해저 -212m이고, 팔복산은 175m 정도 되니 -35m가 되는 셈이다. 갈릴리 바다위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비치는 낮 동안에는 주변에 있는 산들이 모두 뜨거워진다. 하지만 바다위의 공기는 육지공기 보다 차갑기 때문에 바다의 공기가 뜨거운 육지 쪽으로 이동하면서 시원한 바람을 몰고 간다. 예수님께서 팔복산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시원한 바람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고 더불어 말씀이 선명하게 들릴 수 있었을 것이다. 갈릴리 바다는 서쪽으로 아르벨(Arbel) 산이 있고, 동쪽으로는 해발 1000m이상 되는 골란고원이 감싸고 있으며 팔복산이 있는 북쪽으로는 상부 갈릴리 산지가 펼쳐져 북쪽 끝에는 해발 2,814m의 헬몬산이 있다.

그래서 더운 공기가 상부 갈릴리 산지나 골란고원 쪽에서 바다로 내려가면서 팔복산 쪽으로 가면 공기가 배기구를 빠져 나가는 것 같은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북쪽과 동쪽에서 오는 바람이 우기 때는 광풍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보통 때에는 시원한 바람을 만들어 예수님의 사역을 돕기도 하였다.

◈오늘날의 팔복교회가 있는 행복산

오늘날 갈릴리바다 북서쪽 능선에 있는 자그마한 언덕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산이라 부르며 많은 순례객들이 찾아간다. 히브리어로는 이 산을 "하르 오세르"라 부른다. 오세르는 행복을 뜻하고 하르는 산이다. 고로 행복산인 것이다. 최근에 주차장을 단장하고 쇼핑센터와 화장실도 생겼다. 이 주차장에서 바라보는 갈릴리 바다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다.

8복을 상징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는 AD 4세기에 비잔틴 제국에 의해 처음으로 기념교회가 세워졌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침공으로 614년 교회가 파괴되고 오랜 시간동안 방치되었다가 1936년 프란체스코(Francesco) 수녀회가 이탈리아 정부의 후원을 받아 이탈리아 건축가 바를루치(Antonio Barluzzi)에 의해 설계되어 1936~1938년까지 3년에 걸쳐 세워진 교회인데 외형과 내부를 팔각형으로 꾸몄다.

건축가는 라틴어 8복의 성경 구절을 8방향으로 금빛 모자이크 아래 새겨 넣었는데, 그 마지막 구절을 "나로 인하여.... 하늘의 상급을 받는다" 9복으로 생각하였다.

내부의 천정은 우주를 상징하는 파란색 돔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둥근 돔을 하늘의 상급을 뜻하는 9복으로 표현한 것이다.

천정 돔 아래 오른쪽으로부터 라틴어로 8복을 기록하고 있다. 벽에는 가톨릭 교회의 특징대로 골고다 십자가의 길 14개 기념처가 부착되어있다. 가운데 제단과 밑바닥은 일곱 가지의 덕을 상징한다.(사랑, 믿음, 소망= 3덕)+지혜, 용기, 정의, 절제=4덕) 바닥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기도 하다.

8복 교회에 오르면 찬송가 40장이 저절로 흘러나올 정도로 경관이 아름답다. 교회 외부 곳곳마다 작은 집회소를 만들어 순례자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8복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해 놓았다.

◈팔복의 교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얻을까, 무슨 병이 나을까 하여 모인 무리들에게 기적과 병 고침 대신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복이 무엇인가 갈릴리의 맞바람을 이용하여 말씀하셨다.

세상에서 진정한 복은 병 고침도 출세도 세력 얻음도 물질 얻음도 아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을 말씀 하셨다. 8복은 기독교의 황금률, 산상수훈 중 하나라 하여 지금까지 많이 설교되어 왔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말이다. 그렇다면 진정 우리가 8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인가?

물어보면 이론과 실제의 차이점을 많이 느낄 수 있다. 깊이 주님을 느끼고 주님 안에 뿌리박고 사는 이가 진정 8복의 의미를 알 것이다.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가지만 8복의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의문스럽다. 대개 순례객들은 아침이나 오후 늦은 시간에 8복 교회를 방문하는데 건축가는 8복의 마지막 구절을 9복으로 생각하였지만 나는 이곳에 올 때마다 다른 9복에 대하여 외친다. 9복이란 8복에 1복을 추가하는 것인데 그 1복은 마 7:24~27에서 찾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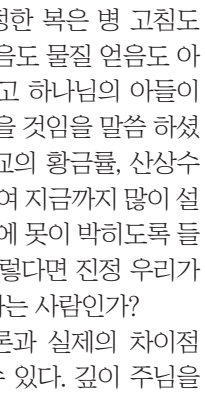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하고 8복을 들었으나 행치 아니 하면 진실로 이 복들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내일을 향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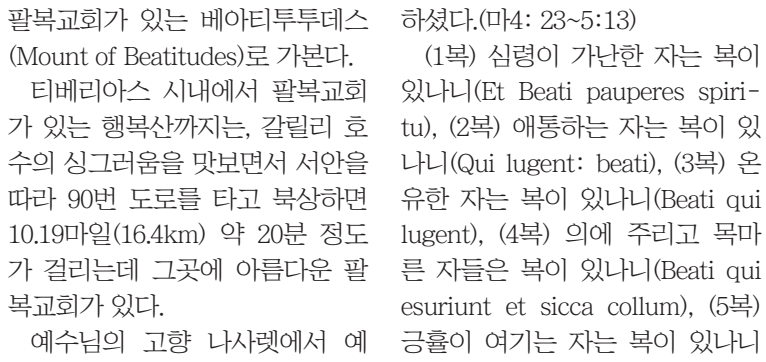
이제 8복산에 올랐으니 1복을 세워 9복의 인생이 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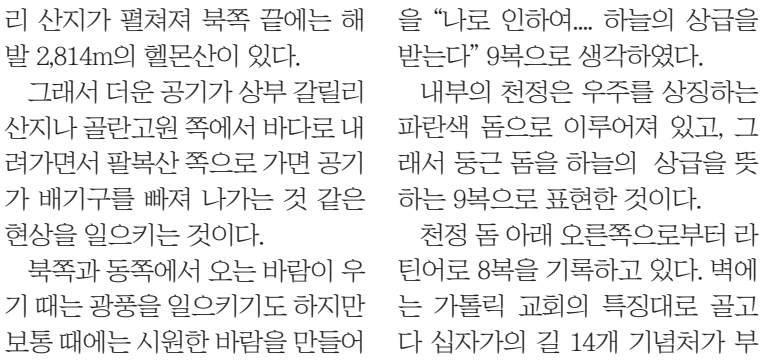
주께서 진정 원하셨던 복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 행복산, 8복산이다.

〈계속〉



서병길 교수
임마누엘대학교
캘리포니아신학교


팔복교회 제단.


팔복교회 내부 천정 모습.

필자와 함께 가는 영성나들이
이스라엘-요르단
2017년 3월 20일~30일
*문의: 213-505-1583
*이메일: iskms@hanmail.net

2017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김시온 목사 T(213)407-4569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류종길 박사, 이사장 : 김광렬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imaster@gmail.com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캘리포니아주교육국(BPPE)인준 정식 학위 수여
수시입학(통신가능),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모집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 강도사 거쳐 목사 안수
모든 민족국제복음주의 총회에서 목사 안수
총장 : 이동규 박사 학장 : PASTOR YOUNG CHOI
978 S. Hoover St #201, LA, CA 90006
T.(213)386-0300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전: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 Woodland Dr. #200,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온라인 쇼핑 비지니스
주부, 여자 유학생 환영
주 8~10시간 사용하여 엑스트라 수입을 창출
연락처 T(818)590-6078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Classified AD


중고차 황제 김기형

Family 자동차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 중고차 최고가 매입 $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한의사랑
한의사 Zo'e 조애
Tel:(213)718-8275
이제마 사상 체질 맥 30년 전문
체질맥, 장부맥, 병맥, 설진
심혈관 질환, 간질환, 중풍, 소화기문제, 내분비문제, 부인병, 고혈압, 당뇨, 부종, 알러지, 신장병, 각종통증, 갱년기, 생리통, 생리불순 (아들 원하시는 분)
2120 W.8th St. #208, LA, CA 90057(8th& Lake St.) (월수토 예약 필수)



















●이슬람 전문칼럼

독일의 난민 정책 변화를 보면서



이 만 석 선교사
한국이란인교회

◈난민들의 어머니 안젤라 메르켈 여사

안젤라 메르켈 독일총리는 난민들의 어머니로 유명하다. 2015년 9월 초 부모를 따라 유럽행 난민선을 탔다가 지중해에서 배가 전복되는 사고로 파도에 밀려 터키 해변가의 시체로 발견된 3살박이 아일란 쿠르디의 사진 한 장에 국제 사회가 안타까워하며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 독일의 안젤라 메르켈 총리는 시리아 난민들을 조건 없이 모두 받아들이겠다고 통 큰 결정을 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가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이 조건 없는 인도주의적 결정으로 인류애를 상징하는 위대한 정치인이라는 세계인의 찬사를 받았다. 그녀는 당의 공식 명칭에 기독교를 삽입한 기독교 민주당 소속으로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면서 비록 테러와 무관치 않은 무슬림들이지만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는 판단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작년 9월 G20 정상회담 참석차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기자들의 질문에 "난민들을 받아들이겠다는 자신의 결정은 옳았다. 그러나 그들을 받아드릴 준비가 덜 되었을 뿐이다. 난민들을 어떻게 사회와 통합시킬 것인가 그리고 난민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돌려보낼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난민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그녀는 70~80%의 지지도를 유지하며 난공불락으로 모든 선거를 휩쓸었다.

◈유럽의 이슬람 난민 대거 유입과 브렉시트

그녀의 결정으로 유럽행 난민들의 문이 활짝 열렸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전쟁터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기왕에 죽을 바엔 앉아서 죽음을 맞기 보다는 유럽의 불법 난민선이라도 타고 탈출을 시도해 볼 것인가의 기로에 서서 갈등하던 무슬림들은 유럽에서 대문을 활짝 열고 난민들을 무조건 받겠다고 했을 때 더 이상 기다릴 필요도 없었다. 무조건 유럽행을 결정하고 유럽으로 몰려들었다. 시리아 난민들 뿐 아니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이란 모로코 리비아 ...등의 난민들이 유럽으로 진군했다. 마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거침없이 밀려들었다. 2015년 9월 5일 헝가리를 거쳐 뮌헨역에 첫 난민 열차가 도착하자 독일 사람들은 "난민 여러분 독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만들어 걸어 놓고 자원봉사자들이 준비해 놓은 따뜻한 음료와 옷과 과자, 아이들을 위한 인형 등의 선물들을 나누며 환영했고 난민들은 눈물을 쏟으며 감사했다. 이날 하루만에 8천여 명의 난민이 독일 땅을 밟았으며 독일 정부는 예상 유입 인원을 80만 명 정도로 보았으나 그 숫자는 점점 불어나 100만 명에 육박하여 독일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되자 EU(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이 나눠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영국은 무슬림들의 숫자가 급증하는 것을 반기지 않아 이를 거부하면서 43년 동안 유지해 왔던 EU 회원국 자격을 반납하고 EU를 탈퇴했으며 이를 브렉시트라 한다.

◈무함마드의 행동모델

무슬림들의 모든 행동은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를 모델로 하는 것을 율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우스와하사나(Uswa Hassana)라고 한다. 자신의 고향 메카에서 유일신을 선포하다가 핍박받던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는 주후622년 메디나로 이주했다. 그는 거기서 기반을 잡고 세력을 키워 결국은 메카와 아라비아 반도를 점령하고 이슬람 세력을 키웠다. 무슬림들의 유럽행 물결은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단지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무함마드의 행동샘플을 실천하는 유럽 점령의 단계적 실천이라고 볼 수도 있다.

◈난민으로 가장한 이슬람 무장세력

유럽으로 들어온 난민들 중에는 정말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조국을 떠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평안한 안식처를 찾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개중에는 이들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원리주의 무장세력들이 난민을 가장하여 유럽으로 밀려들어갔다. IS는 난민들 틈에 섞여 안전하게 유럽으로 들어간 자신들의 대원들이 4천명이라고 발표했다.(YTN2015.9.11) 2015년 9월14일 레바논을 방문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에게 엘리어스 보우 사브 레바논 교육 장관은 "시리아 난민 100명 중 2명은 IS 대원이다"고 말했다고 한다. 영국 데일리 익스프레스는 "터키의 한 난민 밀입국업자가 IS 대원 10여 명이 유럽에 잠입하는 것을 도와준 사실을 시인했다"고 보도했다.

과연 이들은 평화스럽던 유럽에서 테러를 자행하기 시작했고 유럽에서 발생하는 테러들의 대부분이 이들의 소행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급증하는 유럽 여인들에 대한 집단 강간 사건과 살인 절도 및 끊임없이 발생하는 테러 등으로 유럽은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슬람의 세계정복 전략: 샤리아 통치

이슬람의 최종 목적은 세계를 이슬람율법인 샤리아로 통치하는 것이다. 샤리아는 인간의 생명이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 마치 고장난 부품은 언제든지 빼내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것처럼, 사람도 이슬람에 유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폐기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 이슬람의 교리다. 우리가 보기에는 잔인한 테러이지만 이슬람의 율법인 샤리아의 관점으로 보면 거대한 이슬람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는 것이다. 그래서 샤리아로 통치를 하면 언론, 집회의 자유도 없고 기본적인 인권도 보장되지 않는다. 어느 나라든지 형법이라는 것이 있고 그 법을 범한 자들은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이 그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니냐는 것이 그들의 논리다.

◈인기 추락한 안젤라 메르켈

유럽에서 무슬림들 때문에 사회혼란과 국가 안보의 위협 때문에 난민들의 어머니로 추앙받고 있는 안젤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위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주로 영국 프랑스 등지에서 벌어졌던 무슬림들의 테러는 결국 독일의 수도 베를린까지 평화롭게 두지 않았다. 독일이 난민을 무조건 받아주기로 결정한지 꼭 1년만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무슬림들의 테러 덕분에 메르켈 총리의 텃밭인 독일 북부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州)에서 실시한 주의회 선거에서 메르켈 총리가 소속된 기독교민주당은 19%의 지지율로 제 3당으로 전락하고 참패하면서 개인적으로도 70%를 넘던 그녀의 지지도는 40%선까지 급락하여 4선이 불투명해졌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난민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독일의 난민 추방

프랑스 파리의 바타클랑 극장 등에서 총기를 난사하여 132명을 사살한 파리테러 등 유럽의 급증하는 난민들에 의한 테러 때문에 이들에 대한 불만은 고조되었다. 독일인들의 불만은 베를린 테러에서 극에 달했다. 난민 출신의 테러범은 트럭을 납치하여 2016년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기 위해서 특별 마련된 베를린의 크리스마스 시장에 몰려든 인파를 향해 19톤 트럭을 몰아 12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부상한 사건이다. 이는 2016년 7월 프랑스의 혁명 기념 축제를 위해서 니스 해변에서 불꽃놀이 축제에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 19톤 트럭을 몰아 86명을 사망케 한 테러와 방법이 일치한다.

결국 메르켈 총리는 난민 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할 시점에 이르게 되었다. 이들을 어떻게 하면 비난받지 않으면서 도울 수 있을까?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방향은 맞았으나 방법이 문제였다. 난민 수용에 필요한 자금을 터키에 지원하고 거기 정착시키는 방법도 실제로는 에로도안 총리의 이슬람 원리주의 쪽으로 기우는 것을 볼 때 돈만 제공하고 효과는 없는 일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다른 방법이 보이지를 않는다. 우선 더 이상은 난민을 받는 것을 자제하면서 난민으로 수용되지 않은 사람들을 즉시 돌려보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귀국을 거부하는 난민 신청자들

난민 인정을 거부당한 무슬림들은 귀국을 원치 않는다. 불법체류라도 좋으니 유럽에 살겠다는 것이다. 독일 정부는 자국으로 유입된 난민 가운데 자격이 미달되어 수용이 거부된 이들의 송환을 받아달라며 이들 난민의 17개 출신 국가(알제리, 모로코, 에티오피아, 베닌, 부르키나파소, 가나, 기니, 기니비사우, 말리, 나이지리아, 튀니지 등 아프리카 소재 국가뿐 아니라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레바논 등 아시아·중동 국가)에 편지를 보내 호소했다. 이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독일 내 망명이 거부돼 송환돼야 할 난민 20만 명 가운데 송환이 성사된 이는 2만 914명에 불과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난민 수용에 인색한 나라로 인식된다. 2015년 현재 세계 난민들의 숫자는 6천만 명 정도로 보고 있다. 이들 중 우리나라는 94년부터 2015년 말까지 1만5천250명의 난민 신청자가 있었다. 이들 중 576명이 난민으로 인정을 받았고 난민에 준하는 인도적 체류허가(G-1 비자)를 받은 사람들이 910명이라고 한다. 이는 난민 수용률이 3.77% 정도라는 의미다.

그래서 혹자는 한국의 인구도 줄어드는데 이제 난민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발언을 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의 주장을 반박할만한 이론적 근거는 매우 희박해 보인다.

◈난민 수용기준 문턱 높여야

난민 수용에 있어서 무슬림들만은 좀 특별한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무슬림들의 율법은 우리의 미풍양속과 도저히 평화롭게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유럽에서 입증된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무슬림 여학생들은 남학생들과 체육시간에 수영장에 같이 못 들어가겠다고 한다. 무슬림 배달부들은 술과 돼지고기 배달을 거부한다. 숫자가 많아지면 십자가 목걸이를 한 친구들을 폭행한다. 무슬림 택시 운전자는 종교적인 이유로 맹인안내견의 승차를 거부한다. 학교에서 할랄식품을 급식하라고 시위한다. 일부다처 문화, 여성할례, 아내 구타 문제 ... 등등 이런 것들은 자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제적 충돌현상이다.

◈이슬람지역의 기독교인 난민들을 수용해야

2015년 4월 무슬림들과 함께 난민선에 탔던 기독교인 12명이 바다에 던져져 살해당했다. 실제로 기독교인들은 이슬람권에서 인간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난민으로 수용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미국에서는 오바마의 약속에 의해서 작년까지 시리아 난민 1만 명을 받아들였는데 그중 56명만 기독교인이었다고 한다. 모두를 도와야 하겠지만 더욱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난민 수용을 늘이라는 국제사회의 압력에 굳이 이슬람권의 난민을 받아야 한다면 이슬람권에서 처절하게 핍박당하면서도 하소연할 곳조차 없는 기독교인들을 도와야 할 것이다.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북새통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잠언 8:10)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 추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유기성 | 규장 | 2304쪽



흔히 로마서를 두 부분으로 나눈다. 구원론을 중심으로 복음을 말씀하는 1~8장과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말씀하는 9~16장이다. 그러나 로마서를 깊이 묵상해보면 로마서 전체가 한 가지 주제만 말씀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 책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담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후속작으로 로마서 9장부터 16장까지를 다루고 있다.

사랑학교
게리 토마스 | CUP | 372쪽



이미 〈부부학교〉와 〈연애학교〉를 펴낸 복음주의 사역자 게리 토마스가 이번에는 〈사랑학교〉를 펴냈다. 이 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근본 취지이며 중심 주제인 사랑을 다루고 있다. 원서 제목은 〈A Lifelong Love〉이다.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 친밀함과 가정생활의 즐거움을 누리도록 설계하셨다. 게리 토마스는 ㅇ 책을 통해 우리의 결혼을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게 한다.

차세대 목적이 이끄는 하루
릭 워렌 | 두란노 | 392쪽



이 시대 아이들은 무슨 꿈을 꾸는가? 차세대 사회를 짊어질 우리의 아이들은 일찍 찾아온 예민한 사춘기 시절을 지금 무슨 생각으로 물들이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 젊은이들이 급속도로 교회학교를 떠나고 있다. 우리에게는 다음 세대에 신앙을 전수할 책임이 있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을 시작하도록 이끌어 줄 안내서가 출간되었다.

이야기 성경관통: 신약편
이대희 | 엔크리스토 | 228쪽



성경 웹툰 책인 〈마가복음 뒷조사〉로 큰 인기를 얻은 김민석 작가가 이번에는 기독교 신앙과 과학 간의 관계를 그려냈다. 현재 한국교회 다수를 지배하는 젊은지구 창조론의 문제점과, 오랜지구 창조론, 진화적 창조론 및 우주 성전론에 이르기까지 창세기 1장을 둘러싼 다양한 신학적 해석과 더불어 그것이 현대과학과 맺고 있는 함의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그려냈다.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LA : 기독교서적센타 T. (800)669-0451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REVIEW

솔로몬은 '돈, 섹스, 권력'에 어떻게 승리하고 패배했는가

휘튼대 총장 필립 라이큰의 성경 인물 이야기



솔로몬:어떻게 유혹을 이길 것인가
필립 라이큰
IVP | 332쪽

"솔로몬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진정한 위대함과 비극적 실패 둘 다를 발견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심각한 죄에 빠졌다. 다행히도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더 위대한 솔로몬이시다.

예수님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눅 11:31)'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자신의 완벽한 삶과 사역을 언급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솔로몬의 비극이 보여주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바로 그 소망이다."

이 책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솔로몬이 어떻게 길이 빛나는 지혜를 장착하고, 무엇 때문에 그러한 지혜를 갖고도 몰락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몇몇 유명한 이야기들과 함께 단편적이고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던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저자는 솔로몬의 대관식에서부터 장례식까지 그의 인생을 추적하면서, 그와 그 주변 사람들이 '돈, 섹스, 권력'의 유혹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살핀다.

우리 모두가 직면한 그 유혹과 씨름했던 솔로몬의 도덕적 승리와 죄악된 실패를 목도하면서, 우리는 좀 더 지혜롭게 사는 법을 배우게 된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매 장마다 그를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 내고, 또 거기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을 이끌어 낸다. 그 일련의 과정이 매끄럽고 정교하다.

유서 깊은 필라델피아 제10장로교회 목회자 출신으로 현재 휘튼대학 제8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신학과 목회 현장을 두루 거친 그의 내공이 빛을 발했다.

일례로 저자는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타락하기 전, 그 '전조 현상'을 발견한다. 그의 화려한 왕궁을 지으면서 마주한 두 가지 유혹, '마음을 빼앗기는 것'과 '사치'가 바로 그것이다. 솔로몬이 왕궁에 사는 것이 잘못이 아니듯 멋진 집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우리는 마음을 빼앗길 위험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더 많이 가질수록 해야 할 일은 더 늘어나고, 우리의 집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신경을 쓰지 못하게 하기 쉽다.

그러므로, 저자는 "우리의 안락한 생활환경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우선순위를 두는 편이 유익할 것"이라며 "우리가 사는 집은 많은 것들보다 덜 중요하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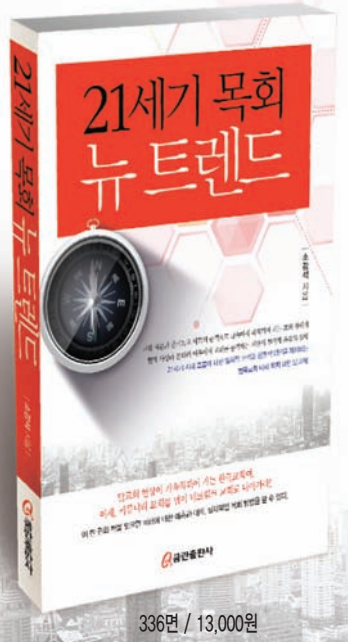
도입부의 예화부터 적용까지 오늘날 현실을 충분히 반영돼 있어 목회자부터 성도들까지 두루 읽을 수 있다. 눈이 가려져 있는 표지 그림도 매우 인상적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유진 피터슨의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을 다시 꺼내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떠올랐다. 원제 'King Solomon: The Temptations of Money, Sex, and Power'.

이대웅 기자

교회 내분과 반기독교 세력의 공격으로
급속하게 파괴되어가는 교회 생태계
현대 사상과 문화의 배후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과 음모의 실체
21세기 시대 흐름에 대한 입체적 분석과
창조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국교회 미래 목회 대안 보고서!

21세기 목회 뉴 트렌드



336면 / 13,000원

소강석 지음

탈교회 현상이 가속화 되어가는 한국교회여,
이제, 커뮤니티 교회를 넘어 네트워크 교회로 나아가라!

이 한 권의 책을 읽으면 미래에 대한 목회 예측과 대안,
실제적인 목회 방법을 알 수 있다.
다가오는 2017년을 '21세기 목회 뉴 트렌드'와 함께 시작하세요!

맨발의 소명자 소강석 목사



1995년 '월간 문예사조'로 등단하여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새에덴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인도를 통해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6 한국기독교출판 최우수상, 마틴 루터 킹 국제평화상, 한국기독교문화대상, 천상병문학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상, 대한민국 보훈문화상, 자랑스러운 한국인상을 받았다. 일사각오의 목양정신과 아름다운 순정에서 나오는 그의 집필 활동은 많은 독자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함께 읽을만한 소강석 목사의 또다른 저서



거룩의 재발견
317면 / 13,000원



생명언어
317면 / 13,000원



안나가? 가나안!
240면 / 11,000원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보라
256면 / 10,000원

쿰란출판사 • 한글인터넷주소 : 쿰란,쿰란출판사 • 홈페이지 www.qumran.co.kr
• 서울 종로구 이화동 184-3 • TEL : 745-1007(대)

[북스리뷰]

'체험' 원하는 신앙 잘못된 것인가

어떻게 영원한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영적 목마름

우리 마음 속에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알고, 사랑하고 싶은 간절한 갈망이 있다. 하지만 육체와 시간 속에 갇힌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리스도는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보다 더 불균등한 관계는 없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셨다. 그분이 아무리 우리 인간과 동등됨을 취하셨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에게 있는 '원죄'는 없으셨다. 즉 우리가 아무리 그분을 좇는다 해도 출발선이 다르다. 그러나 주님 따르는 것을 조건과 환경 탓으로 변명만 하고 있어서도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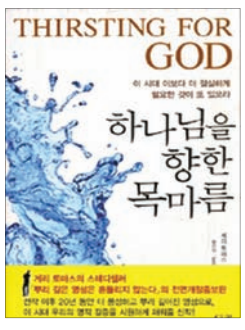
A. J. 러셀은 "모든 살아 있는 교회의 이야기는 영성을 추구하는 지속적 싸움의 이야기"라고 썼다. 그런데 과연 오늘날 교회는 '싸움'보다는 '은혜'에 집착하는 듯 하다. 그러면서 '영성'이 '달란트(기능적 은사)'로 국한되거나, 체험적 신앙이 영성으로 둔갑되는 현상들을 직면하고 있다.

◈고전의 지혜는 적인가?

본서는 일부 개신교가 터부시하거나 경계하는 '요한 클리마쿠스', '십자가의 요한', '아빌라의 테레사', '윌리엄 로', '존 오웬', '프랑수아 페넬롱', '프란시스 드 살레', '헨리 드 러몬드', '질 송' 등이 등장한다. 경계하는 이유는 이들이 '수덕 신학'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로마가톨릭의 이단적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칭의의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성화의 관점에서 이들의 가르침은 충분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

굳이 왜 이런 사람들의 글을 읽느냐고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을 반대하는 분들 중 과연 이들의 글을 읽어보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될까? 만약 종파적 이유 때문이라면 일단 흥분을 가라앉혀야 한다. 필자는 아이들과 진화론을 두고 토론을 한다. 또 청년들과 함께 공부하다 보면, 청년들이 읽은 책들(주로 자기계발서거나 일반 인문서적이다) 중에 이들의 글들보다 더 심각한 사상적 배경을 둔 책들이 훨씬 많다.

시중에 읽히는 자기계발서나 소설 등을 읽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위 저자들은 기독교 고전에 해당하는 자들이다. 독서의 폭을 '세 명의 존'-존 칼빈, 존 맥아더, 존 파이퍼-으로 제한하고 싶은가? 필자는 이들 세 명 모두 존경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추구한다면, 기독교 고전을 무시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 비록 그들이 그 시대적 한계와 지적 편향성, 신앙적 혼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매일 안방에서 보는 드라마보다 훨씬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건전하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 충분히 도움을 받는 것을 금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게리 토마스
CUP | 488쪽

◈영적 스승

요즘 교회 생활은 마치 한 명의 의사가 진료실 한 곳에서 1천 명의 암환자를 모아놓고 똑같은 조언을 내놓는 것 같다. 그 중에는 식도암 환자도 있고, 폐암 환자도 있고, 간암 환자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두 똑같은 강의, 똑같은 정보, 똑같은 적용을 듣는다. 그리고 그들은 그럼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어야 한다.

초대교회 방식은 그렇지 않았다. 〈열두 사도들의 가르침: 디다케〉는 초대교회가 새신자들을 훈련할 때 입문서로 사용한 기독교 고대 문헌이다. 거기에 보면 스승과 제자의 일대일 관계가 전제되어 있다. 전도에 비해 양육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프란시스 드 살레는 자신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쪼개면서 개인들을 섬겼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고백컨대 영혼을 개별 지도하는 일은 고통스럽다. 하지만 이 고통은 추수기와 포도 수확기에 일꾼들이 느끼는 것과 같은 위안을 가져다 준다. 일이 산더미 같고 짐이 심히 무겁지만, 그들에게 이때보다 더 즐거운 때는 없다."

오늘날 영성을 지도해 줄 개인적 스승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핑계만 대고 포기해서도 안 된다. 자기 목적과 욕망의 성취가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면, 본서를 그 시작점으로 해 보기를 권한다. 본서 한 권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거나 의존하라는 말이 아니라, 기독교 고전을 개인적 영성의 형성과 향상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기에 본서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영적 여정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과 영적 성숙을 '여정(성화의 과정)'으로 보았다. 또한 그들은 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맞춰 영혼을 인도하고 양육해야 함을 알았다. 수도자 요하네스 타울러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숙이 얼마나 느린 과정인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언급했다.

"인간은 40세가 되기 전에 결코 지속적 평안에 이르지 못하며, 아무리 노력해도 진정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빚어질 수 없다. 그때까지 인간은 잡다한 것에 사로잡혀 본능의 충동대로 여기저기 휩쓸려 다닌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다른 것들에 지배당하고 있다. 그 나이에 이르지 않고는 참되고 온전한 평안을 얻을 수 없으며, 하나님을 보는 삶 속에 들어설 수도 없다."

혹자는 위의 글을 읽으면서, 성령의 역사를 의존하지 않고, 자의로 이루려 한다고 판단하고 싶을지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 우리가 마음 문을 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과 시간 속에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분이 들어오셨다 할지라도 그분의 음성에 따르지 않거나 관심을 집중하지 않고 그분을 팽개치고 살아간다면, 성화와 영적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물론 구원과 성장은 다르다. 하지만 갓난아이와 같은 구원은 역설적이게도 수치스러운 구원이라고 청교도들은 언급했다.

◈영적 기후, 영적 지형

영적 기후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환경을 말한다. 고전은 다섯 가지 주요 기후를 언급한다. 가정, 직장, 친구관계, 교회, 내면의 사고이다. 불신 남편을 둔 여성도와 믿는 남편을 둔 여성도의 가정 안의 영적 기후는 다르다. 그러므로 성도들을 명제적이거나 당위적으로 지도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영적 기후를 살피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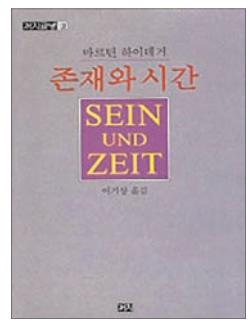
성도들은 실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한다. 이러한 것에 대해 체험을 추구하는 신앙은 잘못된 것이라 책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에 대한 격려와 도움 그리고 바른 지도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 더 이론적 신학과 '체험 신학'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서두르지 않으면 영성도 심리학에 빼앗긴다).

강도헌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운영자

[인문 고전 읽기]

나는 '존재'하므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생각하므로 존재하는가



존재와 시간
마르틴 하이데거
까치 | 592쪽

마르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1889~1976)는 20세기 실존주의의 대표로 꼽히는 독창적인 사상가다.

그의 대표작 〈존재와 시간(Sein und Zeit, 1927)〉은 출간되자마자 철학 사상계의 판도를 순식간에 바꾸어 버렸다.

20세기 유럽 철학의 동향을 논하자면 〈존재와 시간〉을 빼놓을 수 없다.

그만큼 마르틴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은 불후의 명작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핵심을 명쾌하게 밝힌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사실상 '미완의 대작'인 이 책은 존재 의미에 대한 물음을 철학 역사상 처음으로 설정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책으로서의 〈존재와 시간〉은, 처음 저자의 은사인 '후설'의 현상학 연구 연보 제8권에 게재되는 형태로 공표됐다.

이 책의 내용을 구성하는 제1부의 두 편은 각각 '현존재 준비적 기초분석'과 '현존재와 시간성'이라는 표제를 내걸고 있다.

이 책은 후설적 현상학을 독자로 발전시키고, 특히 제1차 세계대전 후의 역사적 상황 속으로 던져진 인간 존재의 양상을 반영하면서, 인간 존재 그 자체의 본질을 훌륭하게 분석해 보인 명저이다.

하이데거는 데카르트가 보여줬던 '나는 생각한다'에서, '나는 존재한다'에로 이동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을 인식론에서 존재론으로의 이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나는 존재한다'의 '나'는 '존재'로부터 이해돼야 한다. 이 '존재'는 언제나 인생의 현실에 서서 끊임없이 다른 것들과 만나고 있는 존재이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철학자들은 '존재' 자체를 문제삼지 않고, 오직 그것이 무엇인가를 논의해 왔다. '존재'란 너무나 자명한 것이어서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여긴 것이다.

하이데거는 그때까지의 서양철학사를 '존재 망각의 역사'라 정의하며, 독단적 철학이라고 비판했다. 인간마저도 사물로 여기게 되면서 인간 소외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인간 삶의 원초적 세계는 욕망과 지성에 의해 물든 소유의 세계가 아니라, 존재의 무구한 세계라는 것을 현대인에게 조용히 일깨웠다.

그가 말했던 '존재의 세계'란, 하늘과 땅을 포함하여 지상에 존재하는 일체의 것이 우리에게 말없이 다가와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면서, 상보적인 관계 속에 조화롭게 펼쳐지는 그런 진리의 세계를 가리킨다.

그는 인간이 지상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지배하여 무제한적으로 이용하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오히려 존재의 세계 안에 거주하는 존재의 이웃으로서 만물을 아낌없이 보살펴야 할 삶의 과제를 떠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책은 출판되자 대단한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실존철학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아마도 철학사상 불후의 걸작으로 남을 것이다.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은 그가 40년 동안 걸어간 사색의 길의 출발점으로서, 기념비적인 책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현대철학의 과제는 하이데거 철학의 재해석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도 우리는 하이데거의 영향 아래 숨쉬고 있는지도 모른다.

다.

송광택 목사
자한국교회독서문화연구회 대표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크오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씨애틀, 달라스,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뱅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무료전화 1-877-580-2424 산호세베이 (310)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A newspaper of reconciliation led by the Holy Spirit

CHRISTIANITY DAILY

SUBSCRIPTIONS:
Don't miss out on the news!
To subscribe,
please e-mail us at
christianitydaily@gmail.com.

Tel. 213-739-0403 www.christianitydaily.com THURSDAY, January 26, 2017 Vol. 86

Starting Off the New Year with 'Gospel Revolution' Revival

BY RACHAEL LEE





Bethel English Church hosted its revival event, 'Gospel Revolution,' from January 20 to 21. Jong Park (right) was featured as the main speaker.

To kick off the new year, Bethel English (BE) Church, located in Irvine, hosted a two-night revival, called 'Gospel Revolution,' from January 20 to 21.

"The heart behind GR17 is to just call our people in the beginning of the new year to Praise Jesus, to hear the Proclamation of the Word, and to respond in Prayer," said Justin Kim, the lead pastor of BE Church.

"Corporately, we want to start off on the right note in the new year. Individually, we are hoping and praying that each attendee will be renewed, rejuvenated, and refreshed by the good news and that they will radically respond to the revelation of who Jesus is and what He has done for us through His life, death, and resurrection," Kim added, saying that BE Church hopes to hold the event on an annual basis. This year was the first.

Jong Park, the lead pastor of Redemption Church in Chicago who was the main speaker for the event, spoke on the first night on why one must be united with Christ, and what happens once he or she is united with Christ.

On why we must be united with Christ, Park said, "When we are not united with Christ, we're united with something else," namely, with sin. Speaking from Galatians 2:20, Park said that "our old self" is united with "Adam."

"We are addicted to sin in our union with Adam," he added. "The only way we can break the unity with Adam is to be united with Christ, the second Adam."

Park referred to the story of the paralytic found in Mark 2:1-12, in which Jesus says to the paralytic in verse 5, "Son, your sins are forgiven."

"What could he possibly do that was so bad?" Park asked. "Yet Jesus says, 'Your sins are forgiven.' It shows us that sin is primarily in the heart."

Once someone is united with Christ, he receives "pardon from sin, and power to overcome it," Park explained. And then, two things happen: the sinner dies with Christ, and Christ lives in him (Galatians 2:20).

"This is not a command to obey," said Park. "This is a discovery to be made, a gift to marvel at, a truth on which to place our faith."

How Would the Apostle Paul Respond to Those Who Oppose Pastors and Ministers?

CRC's Korean Ministry Hosts Preaching Seminar with Dr. Jeffrey Weima

BY JUNHYEONG KIM
TRANSLATED BY RACHAEL LEE

The 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 (CRC)'s Korean ministry held a preaching seminar from January 20 to 21 at Ttokamsa Mission Church in Los Angeles, during which Dr. Jeffrey Weima was featured as the main plenary speaker.

Weima currently teaches New Testament at Calvin Theological Seminary in Grand Rapids, MI. After graduating from Brock University, Weima went on to receive his M.Div. and Th.M. at Calvin Theological Seminary, and then earned his Ph.D. at Wycliffe College in Toronto, Canada. While working at his alma mater, Weima has also been active in various other endeavors, including writing and participating in preaching seminars, among others.

During this recent seminar, Weima spoke for five of the plenary sessions and also preached during the worship service which was open to lay people as well. One of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the sessions is that Weima only referred to 1 Thessalonians to speak on various topics such as thanksgiving, a model of pastoring, sexuality, the second coming, and the rapture.

The third session was titled, "Infants, Nursing Mother & Father: Paul's Portrayal of a Pastor and Parishioners," and Weima spoke on the type of pastor that this generation demands.

Referring to 1 Thessalonians 2:1-12, Weima explained that the Apostle Paul's success in ministry led to the anger of people in both the Jewish community and the Gentile community: the former blamed Paul for taking people away from their temples, and the latter blamed him for converting people away from worshiping the Roman emperor or the Gentile gods. Those who opposed Paul accused him of being a greedy person who tricked people by appealing to them. To those claims, Paul makes his defense in 1 Thess. 2:3-6.

"Today's pastors face the same problem that Paul did," Weima said. Some of the most heard include claims that pastors are: lazy people who work only one hour per week; preachers who are full of themselves; greedy people who follow higher salaries; and hypocrites.

To counter the claims made against him by the Thessalonians, Paul begins his defense by using the analogies of infant, mother, and father.

In 1 Thessalonians 2:7 (NIV), in which Paul says, "We were like young children among you," the original Greek for 'young children' contains the meaning of 'infant.' Paul compared his intentions in ministry to the purity of a newborn infant, emphasizing his innocence.

"Let us evaluate whether we have pure motives just as the Apostle Paul did," said Weima.

Then Paul compares himself to a mother. And not just any mother — a "nursing mother" (1 Thess. 2:7). Going further, Paul describes a mother who is not caring for other children, but her own.



Dr. Jeffrey Weima was featured as the main speaker of the CRC Korean ministry's preaching seminar.

"The sacred calling that has been given to us has always been the call to love those God has given to us," Weima said.

Weima suggested several ways pastors could check how much they truly love their congregation. Does the pastor know the names of the congregants and the situations they are in? What is the pastor's attitude toward the church administrative staff, worship team, and others who serve? Does the pastor listen to others, or does he only speak his own thoughts? Does the pastor rejoice with those who rejoice, and mourn with those who mourn (Romans 12:15) and join with the congregants in their life journeys?

Finally, Paul compares himself to a father. At the time 1 Thessalonians was written, the father had the ultimate authority.

Weima pointed out that current society's emphasis on equality can cause some to want to neglect the authority of the pastor, and said, "Servant leadership is good, but having contempt for authority figures also has a negative effect."

"When trying to start or do something, pastors should not just wait for the input of the congregation, but must also be able to firmly and boldly cast a vision for the future and lead the way," Weima said.

He also drew the line, adding that he doesn't support those who are prideful or dictatorial to take those positions of authority, but that pastors must also not be afraid of exerting authority to the point of refusing to lead the congregation. Weima encouraged pastors to not hesitate from "living lives worthy of God" (1 Thess. 2:12).

"Don't forget that Paul did not defend himself by using the father analogy first, but made his defense as an infant, a mother, and then a father, in that order," said Weima in conclusion. "Before exerting authority, we must first humbly serve and love the congregation."

Christianity Daily Celebrates 13th Anniversary

BY JUNHYEONG KIM
TRANSLATED BY RACHAEL LEE

As this newspaper celebrated its 13th anniversary on January 23, it committed to "become a newspaper that shares life and joy to the immigrant community and to a dark world."

Christianity Daily, which was established on January 23, 2004, had previously hosted worship services to celebrate its anniversaries with leaders in the church and local communities. However, the worship service was simplified this year as staff are preparing for a forum in commemoration of the 500th anniversary of the Reformation.

The service included a special song by Rev. Won Chul Ma of Palm Springs All Nations Church, followed by a sermon by Rev. Yu Chul Chin of LA Full Gospel Church. Rev. David Oh of Southern California Bethel Church shared congratulatory remarks.

Chin preached on Philippians 1:3-6, and shared the secret to why the Apostle Paul, who was imprisoned when writing the letter, was actually able to remain joyful.

"Paul was confident that God was with him, and through his faith and gratitude toward God, Paul was able to free himself from being discouraged at the injustice he was facing," Chin said. "And even within the prison, Paul was able to experience fullness in the Lord."

"I hope you will be a newspaper that, rather than exposing the negative aspects of people and dwells on discouragement in unjust situations, delivers a message of joy that changes and saves lives through the fullness of Christ," said Chin.

After being established in 2004, Christianity Daily has expanded its reach and currently has branches in New York, Atlanta, Seattle, and other regions in the U.S. In Los Angeles, Christianity Daily has a website that is updated daily, and a newspaper that is published weekly.

Pastors Train to Become Advocates of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Intervention

The Korean Christian community in Southern California has gained 23 more advocates trained to prevent domestic violence and to build healthier families.

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s (KFAM) and the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PTSA) have partnered together and hosted a 40 Hour Domestic Violence Advocate Training from January 9 to 13 at the PTSA campus. PTSA opened up the training session as a special winter program for current students and alumni who wish to be more informed about how to better provide help for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and how to prevent future cases.

The training took place from 9 AM to 5 PM for five days, during which the participants were able to learn about domestic violence from various angles, including historical, psychological, societal, and legal perspectives. In particular, the training explored specific topics such as child abuse and its influence, teen dating violence, the history of domestic violence, safety measures for victims, immigration and prosecution law, and the counseling resources that are available for victims, among other topics. Those who attended the training were also able to listen to examples of actual instances of domestic violence faced by clients who sought help at KFAM, and the ways that KFAM provided help through counseling and legal measures.

"We opened up this specialization course as a special winter seminar to help increase the capacity of our students and graduates as they serve, but the interest level was so high that we had a waiting list," said Sang Meyng Lee, the president of PTSA. "We plan to provide special seminars in various fields to help increase the capacity of our students to be able to prepare for and solve the problems that they will face in their ministries."

Connie Chung Joe, the executive director of KFAM, said that "partnering with the Korean church community is so important to prevent domestic violence."

"We want to continue to partner with the Korean church community in diverse ways in the future, and join efforts to build healthy Korean families, a healthy society, and healthy churches," she added.

KFAM is an organization officially recognized by the state of California to host a 40 hour professional training session on domestic violence intervention and prevention, and provided certificates of completion to those who participated in this recent training.

KFAM has hosted other programs with the Korean Christian community, including retreats and conferences to equip Korean ministers to prevent future cases of domestic violence and to help those who have already faced domestic violence.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7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30 AM & 11:30 AM
Sunday School: 11:30 AM
College Group Meetings: Fridays at 6 PM
Pastor Sung Chang
Charis Mission Church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www.charis.church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2:4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Donald Trump Inaugurated as President, Signs Flurry of Executive Orders

Trump Signs Executive Order to Prohibit U.S. Funding Toward International NGOs that Promote Abortion

President Donald Trump signed an executive order on Monday prohibiting nongovernmental agencies abroad which receive U.S. funding from promoting abortion or discussing it as an option in family planning.

The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is already prohibited from giving U.S. funds to provide abortions in any country. However, this policy would freeze U.S. funding from the organizations that advocate for abortion rights or promote it as a family planning option, even if those organizations do not use U.S. funds for those specific purposes.

Called the 'Mexico City Policy,' the policy was first introduced and enforced during former President Ronald Reagan's term, after which subsequent presidents have enacted executive orders to either repeal it, or reinstate it.

"We applaud President Trump for putting an end to taxpayer funding of groups that promote the killing of unborn children in developing nations," said Carol Tobias, the president of the National Right to Life Committee.

Critics of the policy argue that it puts women in developing countries more at risk of unplanned pregnancies and that it would cause more abortions.

"Attempts to stop abortion through restrictive laws — or by withholding family planning aid — will never work, because they do not eliminate women's need for abortion," Marjorie Newman-Williams, the vice president and director of international operations at Marie Stopes International, was quoted by CNN as saying. "This policy only exacerbates the already significant challenge of ensuring that people in the developing world who want to time and space their children can obtain the contraception they need to do so."

Meanwhile, President Trump has had changing views on abortion over the years, but has expressed a largely pro-life stance during his election campaign. White House Press Secretary Sean Spicer said during the first daily press briefing that Trump "wants to stand up for all Americans, including the unborn," and added that "the reinstatement of this policy is not just something that echoes that value, but respects taxpayer funding as well."

"President Trump's immediate action to promote respect for all human life, including vulnerable unborn children abroad, as well as conscience rights, sends a strong signal about his administration's pro-life priorities," said Marjorie Dannenfelser, president of the Susan B. Anthony List.

Two of Trump's Executive Orders Enact More Restrictive Immigration Policies, Including Border Wall

Among several executive orders that President Donald Trump signed during his first week as U.S. president, two of them signed on Wednesday made some of his campaign promises on immigration a reality: building a wall along the Mexican border, increasing the number of Border Patrol and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officers, and cutting funding to sanctuary cities, among others.

One of the executive orders, titled, "Border Security and Immigration Enforcement Improvements," includes the policy to build the physical wall. Trump said that plans for the wall along the Mexican border will start being made "immediately," but that the money used to build it will first be channeled from U.S. dollars and later "100 percent" reimbursed by the Mexican government, though Mexico has denied that it would pay for such a wall. Details on how much it would cost, or what the wall would look like, are still unclear.

This order also compels the Commissioner of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to hire 5,000 more border patrol agents.

The other executive order, titled, "Enhancing Public Safety in the Interior of the United States," compels the Director of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to hire 10,000 additional immigration officers.

The same order also contains a policy that would take away federal grants from jurisdictions that hinder the enforcement of immigration laws, which are otherwise known as "sanctuary cities." Hundreds of regions such as Los Angeles, San Diego, Seattle, and Boston, have various policies that allow for limited cooperation with immigration enforcement.



An immigration reform rally that took place in Indianapolis in May 2010 (Photo: 'SEIU local 1' / Flickr / CC)

"We are in the middle of a crisis on our southern border: The unprecedented surge of illegal migrants from Central America is harming both Mexico and the United States," said Trump on Wednesday. "And I believe the steps we will take starting right now will improve the safety in both of our countries."

"A nation without borders is not a nation," he added.

Meanwhile, immigration reform activists quickly denounced Trump's moves.

Christian Ramirez, director of the Southern Border Communities Coalition, said Trump's plan to build a wall is "political theater."

"The border wall is about political theater at the expense of civil liberties," Ramirez said. "It is not national security policy. Border communities are among the safest in the nation and patrolling them with tens of thousands of heavily armed, poorly trained, unaccountable agents puts lives at risks. This will turn these communities into de facto military zones."

"Trump is taking a wrecking ball to our immigration system," said Marielena Hincapié, executive director of the National Immigration Law Center. "It shouldn't come as a surprise that chaos and destruction will be the outcome."

The policies enacted by the executive orders would also make many new undocumented immigrants priorities for deportation under a new set of deportation criteria. While under the Obama administration, undocumented immigrants convicted of serious crimes such as a felony, serious misdemeanor, or multiple misdemeanors were prioritized for deportation, Trump's executive orders prioritize any undocumented immigrants convicted or charged with any crime that hasn't been formally adjudicated.

Association of Christian Universities Call on Lawmakers to Pass Immigration Reform Bill

The Council for Christian Colleges and Universities (CCCU), an association of over 170 Christian institutions in North America and internationally, is calling on U.S. lawmakers to pass a bill that would provide protections to undocumented immigrants, similar to the protections offered in former President Obama's executive orders.

Called the Bar Removal of Individuals who Dream and Grow our Economy (BRIDGE) Act, the bill was introduced in Congress in early December, and seeks to amend existing immigration law to offer provisional protection from deportation and authorization to work in the U.S. to those who are eligible.

Eligibility requirements include having been under the age of 16 upon arrival to the U.S.; and being a current student or a high school graduate, or having obtained a GED certificate. The BRIDGE Act would also ensure that DACA recipients remain protected until the expiration date of the status. Those protected under the BRIDGE Act would receive protection for three years.

The CCCU, which includes affiliate universities such as Biola University, Azusa Pacific University, and Wheaton College, sent a letter dated January 12 to Senators Richard Durbin and Lindsey Graham expressing its support for the legislation.

"The CCCU has long been a proponent of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 that respects the rule of law and creates new opportunities for the many undocumented students currently attending CCCU campuses," wrote Shirley V. Hoogstra, the president of the CCCU. Hoogstra is the fifth consecutive president to express support for offering protections for young undocumented immigrants.

In the letter, Hoogstra notes that a lack of legal status provides "significant uncertainty" to young immigrants, which "prohibits these students from using their God-given talents, abilities, and skills, and it squanders the significant educational investment our country has already made so that they can contribute to communities."

"As educators, we want to support ambitious, driven, intelligent students who have dreams of contributing to their communities and want to pursue an education, and we do not believe they should be disqualified from doing so because of acts they did not commit," Hoogstra continues. "These are inequities that must be remedied."

Supporters of immigration reform have expressed alarm in recent months as President Trump has had a harsh rhetoric towards immigration during his presidential campaign. On Wednesday, Trump signed two executive orders to build a physical wall along America's southern border, as well as to employ more officers in border patrol and immigration enforcement.

Meanwhile, a February 2015 study conducted by LifeWay Research showed that 68 percent of evangelicals believe "it is important for Congress to pass significant new immigration legislation." Over 8-in-10 (82 percent of) evangelicals said those immigration reforms "should respect people's God-given dignity," and 72 percent of evangelicals said immigration reform "should protect the unity of the immediate family."

Sunday Services: 9 AM & 11:15 AM
Children's Ministry: 9 AM & 11:15 AM
Youth Group Service: Sundays at 11:15 AM
Pastor Keith Park
Church of Southland
1380 S. Sanderson Ave, Anaheim, CA 92806
T. (714) 209-7349 / churchofsouthland.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Brea Campus Service Times: 9:30 AM, 11:30 AM
Irvine Campus Service Time: 10:30 AM
Pastor Steve Choi
Crossway Community Church
Brea: 695 Madison Way, Brea, CA 92821
Irvine: 100 Honors, Irvine, CA 92620
T. (714) 529-5551 / crossway-church.com

Sunday Services: 9 AM & 10:45 AM
Children's Ministry Services: 9 AM & 10:45 AM
Youth Services: Sundays at 9 AM, Wednesdays at 6:30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0:45 AM
Pastor Tim Park
Evangelical Free Church Diamond Bar
3255 S. Diamond Bar Blvd, Diamond Bar, CA 91765
T. (909) 594-7604 / www.efreedb.org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 gsch.org

Sunday Services: 9 AM & 11 AM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Pastor Sam Koh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la.org

Sunday Services: 9:45 AM
Pastor Phil Kim
The Home Church
19271 Colima Rd. Suite A/B,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384-1393 / thehomechurchrowland.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clafgc.com

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Sunday Services: 10: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0:30 AM, 12:15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2:15 PM
Pastor Kiwon Suh
New Life Vision Church
4077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323) 373-0110 / www.nlvc.org

Sunday Services:
8:30 AM, 9:45 AM & 11:15 AM
Pastor Paul Kim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1831 South El Camino Real Encinitas, CA 92024
T. (760) 753-2535 / www.redeemersd.org

Sunday Services: 1 PM
Youth Group Services:
Sundays at 11 PM, Thursdays at 7 PM
Pastor Daniel Han
Restore Fellowship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 www.ladongsan.com

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9:45 AM, 11:15 AM, 12:45 PM
Jefferson Campus Sunday Services:
9:30 AM, 11:30 AM
Pastor Michael Lee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fferson: 150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 yncla.org

활성산소 제거?
해답은 수소수!

좋은 물을 마시면 우리의 건강이 좋아집니다

노화를 촉진하고 세포와 DNA를 공격하여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병들의 원인이 바로 활성산소(독성산소, Free Radicals)이며, 수소는 그런 활성산소와 결합하여, 우리 몸에서 부작용이 전혀 없는 물로 변환되어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수소의 역할
- 대표적 활성산소인 하이드록시 래디컬과 결합해서 몸에서 배출
- 체내의 염증을 제거하여 통증을 완화
- 미세분자상태로 체내의 모든 부분, 심지어 뇌까지 도달되어 활성산소를 제거

본 수소수기의 특징
1) 2중 역삼투압 방식에 의한 순수한 원수를 바탕으로 고농도(800~1,000ppb)의 수소수를 생성하며, 물의 성질은 우리 몸에 가장 적합한 약알카리 상태가 됩니다.
2) 대용량 필터를 사용하여, 깨끗한 물을 생산한 별도의 전해조에서 생산된 수소가스를 우리가 음용하는 물에 가압하는 첨단방식으로 즉시 물을 드실 수 있고 오랜기간을 사용해도 수소가스의 농도가 유지됩니다.



일본의 시타마대학교의 하타나 가주끼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수소농도 1,000ppb의 경우에 베타카로틴 함량 기준으로, 위와 같은 양의 항산화 물질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 항산화 물질은 들어갈 수 없는 뇌 속이나 깊은 장기의 미세조직까지도 수소는 도달될 수 있으며 도달된 수소는 활성산소들을 물로 변환시키므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프랑스 "루르드 샘물"
독 일 "노르데나우 샘물"
멕시코 "트라코테 샘물"
세계 3대 샘물의 비밀

기적의 수소수를
가정에서 드세요!

수소수 무료 시음!
깨끗하고 건강한 물 드시러 오세요.
안국의 PLUS 에서
생산된 우수한 제품입니다.

CTP 100
$1,390 +Tax
- 1년 필터교환 무상
- 냉, 온수 정수기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GSPH 100
$2,990 +Tax
- 1년 필터교환 무상
- 냉, 온수 수소수기

수소 보틀(1병) 구입시
에네스티 핸드크림 2개 Free
(12불 상당 사은품)
공짜



▪환원력이 뛰어난 수소가 생성되는 보틀

[제품특징]
*스테인레스 필터를 통해 잎차, 티백, 천연차 등 다양한 음료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적정사용온도 : 친환경소재와 제품 변형 방지를 위해 –20도~100도 사이에서 사용을 권합니다.
*심플한 디자인, 친환경 트라이탄 소재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높은 휴대성으로 여행, 스포츠, 레저 등은 물론 일상에서도 편리합니다.

1병 $65.00 +TAX

특별 이벤트

PRO-Z USA에서는 그동안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특별 이벤트를 실시하오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하세요



한병 더
절호의 찬스
지금 구매하시면!
3병 +(1병 Free)
$267 +Tax

*가까운 약국이나 건강식품점에서 구입하세요!

프로지 골드
PRO-Z GOLD

HIGH QUALITY 100% 천연성분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인슐린의 저항성을 낮추어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과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BAJA CALIFORNIA NATURAL SEA SALT

세계 최대 규모의 천일염 생산지

바하 캘리포니아 소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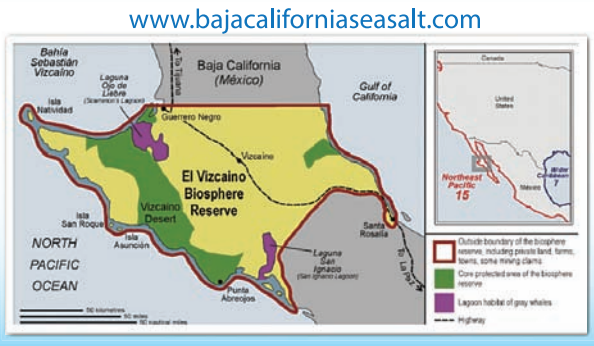
바하 캘리포니아 소금의 특징
- 최적의 생산조건에서 생성된 순도 99.70%의 미네랄소금
- 중금속 0.001% 청정 천일염
- 간수 제거된 건강 천일염
- 다년간 생산과정을 거친 최상급 천일염
- KA-Kosher 인증 천일염

바하 캘리포니아(BAJA CALIFORNIA) 염전의 특징
- 청정해역에 위치한 깨끗한 구역
- 적은 강수량 (50mm/년)
- 강한 일조량 (2M/년)
- 년 평균 기온 (18~22°C)
- 강한 바람

성분분석 및 인증서
바하캘리포니아 천일염은 기존의 호주 수입 천일염 및 국내 천일염과 비교하여 천일염의 기능과 소비자의 선호도 또한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 1봉지

www.bajacaliforniaseasalt.com



UNESCO's El Vizcaino Biosphere Reserve

건강한 피부의 시작
에네스티 화장품
enestf



이제 물에서도 당당하게!
Enesti UV CUT SUN BLOCK
에네스티 유브이 컷 썬블럭
워터 프루프/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
(메이크업 베이스 겸용
SPF 50+ PA+++ (40ml)
$8.00 + tax

축축! 시어버터 핸드크림

PROTECTION FROM UVA, UVB WATERPROOF ANTI-SHINE EMULSION
Enesti 샤르르~ 시어버터 촉촉 매끈 핸드크림
초고보습 시어버터 함유 Softening and moisturizing
Net wt. 50g **$6.00** + tax

구입 문의 **213. 434. 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100, LA, CA 90005

PRO-Z USA Inc.
프로지 유에스에이